2010年2月 教育學碩士(漢文教育)學位論文

河西 金麟厚의 歲時風俗詩 研究 A study on Haseo Kim In-hu's Poem of Seasonal Customs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 文 教 育 專 攻 李 孝 眞

# 河西 金麟厚의 歳時風俗詩 研究

A study on Haseo Kim In-hu's Poem of Seasonal Customs

2010年 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 文 教 育 專 攻 李 孝 眞

# 河西 金麟厚의 歲時風俗詩 研究 指導教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9年 10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 文 教 育 專 攻 李 孝 眞

# 李孝眞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查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教 授 印 審 查 委 員 朝鮮大學校 教 授 印 審 查 委 員 朝鮮大學校 教 授 印

2009年 1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ABSTRACT ·····iii
I. 서론 ···································
Ⅱ. 歲時風俗詩9
1. 名節 관련 세시풍속시9
1.1 正月
1.2 寒食
1.3 端午
1.4 仲秋節
2. 辟邪 관련 세시풍속시34
2.1 立春35
2.2 踏青節
2.3 流頭
2.4 冬至
Ⅲ. 其他 風俗詩
1. 釋奠日
2. 臘日
Ⅳ. 김인후 풍속시의 문학사적 위상 ···································

V.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참	고	문	헍							 				77

# A study on Haseo Kim In-hu's Poem of Seasonal Customs

Lee Hyo-Jin

Adviser: Kwon Soon-yoel Litt.D.

Major: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for the study that analyzes Haseo Kim In-hu's thoughts, who represents confucian scholar and a wenren in Honam, and with his poems of seasonal customs. <Haseo-Chunjib>, which is a collection of his works, contains approximately 52 numbers of poems. With base of these poems, this research focused on poems related with holidays, which are Jung-woel, Han-sik, Dan-oh, and Jung-chu-jul, poems related with Byuk-Sa, which are Ip-chun, Dap-chung-jul, Yu-du, and Dong-ji, and other poems such as Suk-jun-il and Nap-il. From study of these poems, this research will figure out his motive. Through his motive, literal status of poem of seasonal customs from Kim In-hu also will be figure out.

Jung-woel, one of the poems of seasonal customs that is related to Korea tradition festive day, is the first day of the lunar calendar. It has been distinguished New Year's Day in the lunar calendar and fifteenth day of the lunar month. Kim In-hu considers Jung-woel as important, and

demonstrates affection for Yang San-Bo. It can be seen in his poems on January that is related to farming and the spirit of affection for people.

Han-sik falls on the 105th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or early April. It has been described the circumstances of town on Han-sik objectively in Kim In-hu's poems of seasonal customs and illustrated vividly with contrasts of colors and metaphor. He expressed the will on loyalty and uprightness as a liege and as a king in his poem.

Dan-oh is May fifth in the lunar calendar and is considered as the four great tradition festive day in Korea. Dan-oh came from the death of Gulwon in Chuguo, China. Kim In-hu expressed his feeling being sorry by death of Gulwon in written words. Dan-oh-chup describes wish of health of king and rich year, and he expresses his mind about well-being life of ordinary people based on agriculture.

Jung-chu-jul is Fifteenth of August in the lunar and is called Han-ga-wee or Chu-seok. His poems of customs does not mentioned concretely about the customs of Jung-chu-jul. He took care of the people's life and concerned suffering from a bad year.

Ip-chun related to Byuk-Sa falls on between New Year's Day and the 15th day of the first lunar month of January. There were some customs that wish them good luck for a year with customs of January by preparing farming in farm houses. Kim In-hu concerned about well-being of the people and put a stress on the importance of the beginning of farming. Also, he wished a country with full of good energy from spring.

Dap-chung-chul is Sap-jit-nal on March. 03 in lunatic calendar. In poem

of Kim In-hu, Description of spring scene improves this poem, and poem also contains image of writer with rural life, who retire his public service.

Yu-du is 15th of June in the lunar calendar, means wash hair with running water especially toward the east refers to get yang energy and not be affected by the heat. It is also a festive day peculiar to Korea. Kim In-hu describe his personal emotion to his poem. This description makes literature of emotion with humane atmosphere.

Dong-ji on November in the lunar calendar and around 22th of December in the solar calendar. This is the day, which is the shortest daytime and the longest nighttime and the beginning time to originate yang. He demonstrated that the character of yin and yang in Dong-ji rotates and harmonizes in his works. And he wishes a country to have reign of peace with ending a year. Dong-ji has an old custom that eating a rice and adzuki-bean porridge in a temperance in eating manner. He put a stress on preparing future life before beginning a year. Moreover, it has been shown that he try hard with enthusiasm for study.

Suk-jun-il and Nap-il are customs related with memorial ceremony. For first, Suk-jun il is a day of Suk-jun-je, when memorial ceremony for Gong-Ja is offered in Mun-tomb. This memorial ceremony starts on February and August in lunatic calendar. Kim In-Hu gives his devotion with virtue to memorial ceremony.

Nap-il is the third day after Dong-Ji. It is a day of memorial ceremony for ancestor, Jongmyo, and Sa-jik. It is noticeable that he has special affection for the people by showing human touch that he prays for a good

harvest and joy, anger together with sorrow and pleasure with the people.

Literal statuses of poem of Seasonal Customs from Kim In-hu are on the below. First, he provides characters such as Yo-Sun·Mun-wang·Gong-ja, and he shows literature of Do with appearance of doctor of Do and Do-hak concept. Second, he improves literary value of his poem with various rhetorics and imagery such as expression of various emotion, comparison·contrast of color, figure of speech, and symbolism. Third, His psychological world aims to things such as patriotism, devotion, and leading of free and quiet life. It is similar to psychological world of confucian scholars in 16th century. Especially, he was interested in the people's customs and social conditions in his works. It means he is very concerned about the mind of the people and take a close look on lives of the people.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he conveyed all things from the concern and affection for the people as well as a realistic description of customs in his poems.

## I . 서론

河西 金麟厚(1510~1560)는 호남을 대표하는 儒學者로 학문과 節義 및 도덕이 출중한 인물이며, 正祖代에 文廟에 배향된 '東國十八賢' 가운데 한사람이다. 그는 문장가며 시인으로 16세기 한국 한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장성출신으로 본관은 울산이며, 자는 厚之이고, 호는 河西 또는 湛齋로 불린다. 그는아버지 의릉참봉인 齡과 어머니 玉川趙氏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金安國에게 사사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여서는 李滉 등과 교우를 맺었다. 1540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權知承文院副正字로 관직에 나아가, 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고, 弘文館著作・弘文館博士 겸 世子侍講院說書・弘文館副修撰 등을 지냈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玉果縣監으로 나갔다가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으로 돌아갔다. 성균관전적・공조정랑・홍문관교리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시문에 능하여 10여권의 시문집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河西全集』이다.

현전하는 『하서전집』은 1802년에 후손인 金日柱에 의해 三刊된 것으로 原集 12 권, 附錄 4권 합 8책으로 되어 있다. 卷1에는 辭 5수와 賦 13수가 실려 있으며, 卷2 부터 卷10까지는 四言古詩 1수, 五言古詩 173수, 七言古詩 73수, 五言絶句 350수, 七言絶句 471수, 五言律詩 264수, 七言律詩 217수, 五言排律 25수, 七言排律 6수 등약 1662수가 실려 있다.

김인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의 시 작품들은 주로 도학적인 측면<sup>1)</sup>에서 접근하여 그의 시를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었고, 문

<sup>1)</sup> 김병주,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河西기념회, 2000.

김종진, 「河西 金麟厚의 '主情的 道學'의 詩觀과 詩世界」, 『한문교육연구』 第11輯, 한국 한문교육학회, 1997.

김진영, 「도학파 시문학의 한 양상 : 김인후」, 『시와 시학』, 1994.

학적인 측면보다는 사상적인 측면2)에 더 집중되어 있다. 그의 작품들 속에는 孝와 忠, 가족, 친구, 술, 학문, 이별, 較詩 등 다양한 종류의 주제가 쓰여 졌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山水詩3)와 詠物詩4)에 집중되어 있다. 즉 김인후의 風俗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그의 풍속시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와 더불어 김인후의 작품에 대한 연구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 그리고 시작과 끝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김인후의 시 창작 배경은 사화로 이어진 16세기 정치사와 호남시단과의 관련이 깊다. 이는 사화 이후에 그의 삶 대부분을 호남에서 보냈고, 그의 생활터전이 되었던 곳은 호남이기 때문이다. 그는 호남의 장성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인종의 세자 시절 세자시강원 說書였으며, 죽기 전에 "인종 승하 이후의 벼슬은 쓰지 말라."5)고 유언할 정도로 인종에 대한 忠節이 깊었다. 그는 인종

이동환. 「하서의 도학적 시세계」,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하서기념회, 1994.

이현주, 「河西 辭, 賦문학의 도학적 성격」, 『고시가연구』第5輯,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河西紀念會,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994.

허이종,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sup>2)</sup> 오병무, 「河西 金麟厚의 性理哲學」, 『東洋哲學研究』第36輯, 동양철학연구회, 2004. 유권종, 「河西 김인후의 實理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第12輯,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88

정대환, 「河西 性理學과 畿湖儒學」, 『哲學研究』第69輯, 대한철학회, 1999.

정병련,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性理學」, 『유교사상연구』第12輯, 한국유교학회, 1999.

조기영,「金麟厚의 法古精神과 現實認識」,『洌上古典研究』第7輯, 洌上古典研究會, 1994.

최영성, 「河西 金麟厚의 學問과 出處觀」, 『東洋古典硏究』第12輯, 東洋古典學會. 1999.

하상규,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敎育 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sup>3)</sup> 박성규, 「河西 金麟厚의 自然詩 硏究」,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안봄,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硏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정경희, 「河西 金麟厚의 詩世界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sup>4)</sup> 박명희,「하서 영물시에 나타난 물의 표상성」,『고시가연구』第10輯,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박병익,「『倪仰亭三十詠』과 自然景物에 대한 美感 - 金麟厚, 高敬命, 林億齡, 朴淳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第21輯,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박준규, 「河西 金鱗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 글』第25輯, 우리말글학회, 2002.

승하 후에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39세 때인 明宗 3(1548)年에 순창으로 내려가 초 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6) 그는 호남지방의 누정을 다니면서 선후배들과 많은 시를 주고받았다.7) 그는 장성, 순창, 담양, 광주 등의 호남일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 냈다. 이런 점을 볼 때 김인후의 풍속시는 호남 일대의 풍속을 반영하며, 호남의 풍속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김인후의 작품들의 내용을 보면 주로 도학적 宋詩風의 성격이 가득하고 唐詩風의 다양성이 부족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그의 시편은 대부분 도학자의 詩風이 풍부하다. 이는 도학 정치에 몸담았던 김인후의 삶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김굉필의 학통을 잇는 유학자이며, 經世濟民 의식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그의 작품들에는 도학사상을 실천하는 선비로서 김인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시에는 임금에 대한 忠의 마음이 보인다. 이렇듯 그의 정신세계인 도학사상은 그의 문학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풍을 가진 김인후의 세시풍속 인식의 태도를 살피는 작업은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당대 致仕하여 은둔하면서 도학적 시를 쓴 선비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의 풍속시 연구는 도학자로서의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김인후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작품들 중에 풍속시를 살펴 그의 思惟觀을 밝히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다.

風俗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뗼 수 없는 삶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문화의 현상은 민속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의식주, 생업활동 등이

<sup>5)</sup> 吾死後, 勿書乙巳以後官爵. (「年譜別本」, 『河西全集續編』卷1.)

<sup>6)</sup> 鮎巖之上, 創立草堂扁以訓蒙, 日與諸生講學, 遊息悠然有出, 塵之想焉. (「年譜」, 『河西全集 附錄』卷3.)

<sup>7)</sup> 交友로는 柳希春, 梁山甫, 李恒, 李滉, 盧守愼, 鄭惟吉, 林亨秀, 林億齡, 白光弘, 李洪男, 吳祥, 尹潔, 李後白, 金若默, 宋寅, 高敬命, 羅世續, 李鶴 등이 있는데, 다 學問이 깊었거나, 志節로 이름 높았다거나, 文章이 뛰어났던 인물들로서 이들과의 수많은 詩教가 文集에 나타나 있다. 이들과는 또 사돈이나 同壻 사이, 小科·大科의 同榜, 湖堂修契, 歌壇에서의 活動 등으로 깊은 因緣을 맺고 있다. (김성진, 「河西 金麟厚의 生涯와 詩文學的 性向」(『漢文古典研究』第16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08), 94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풍속을 소재로 형상화한 시를 풍속시라 한다. 다만, 민간의 풍속과 민중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다룬 紀俗詩와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민간정서, 민간풍속, 민간생활 등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필치로 묘사하거나 지방의 구체적 현실과 지방민의 구체적 삶을 묘사하여 하나의 지방공간을 생생하게 복원시킨 竹枝詞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8) 이런 풍속시를 살피는 작업은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김인후의 삶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표 1:『하서전집』 풍속시 작품>

음력	24 절기	세 시	세시 풍속 행사	작품명		
1월	立春雨水	설	설빔, 팽이치기, 윷놀이, 복조리, 널뛰기, 액막이, 차례, 성묘, 토 종비결보기, 머리카락 태우기.	「正月朔日書」		
		대 보 름	쥐불놀이, 달맞이, 답교, 연날 리기, 과수나무 돌 끼우기, 볏가 릿대 세우기, 바람점보기, 오곡 밥 먹기, 부럼 깨물기, 줄다리 기, 더위팔기, 용알뜨기.	「上元夕」 「戊申上元奉寄瀟灑園」 「己酉上元奉寄瀟灑園」 「遠期呼韻」		
		입 춘	입춘첩 붙이기, 도부 붙이기, 입 춘 굿.	「立春日作」		
2월	驚蟄 春分	머 슴 날	원머슴, 나이떡, 콩 볶기, 초경, 노래기.			

<sup>8)</sup> 이제희, 「한국죽지사 연구」(인하대학교대학원, 2001), 13면 참조.

		영 등 날	영등할머니 맞이, 농신, 영등굿놀이.	
		석 전 일	석전제	「釋奠日作」「釋奠日作」
3월	清明穀雨	삼 짇 날	활쏘기, 답청, 각시놀음, 장 담 그기, 나비점, 버들피리, 화전놀 이, 시 읊기, 목욕하기.	「宋上舍求和贈言錄中韻」「上巳踏靑」
		한 식	한식묘제, 격구놀이, 개자추 전설, 새 불 만들기, 그네타기, 성묘, 지전 태우기.	「撃毬賦」 「寒食日作」 「觀撃毬」
4월	立夏小滿	초 파 일	연등, 등 띄우기, 줄불놀이.	「觀燈」
5월	芒種夏至	단 오	단오부채, 쑥호랑이, 천중부적, 단오치장, 창포, 그네뛰기, 씨름, 봉숭아물들이기, 경도놀이, 단오 부적.	「競渡」 「汨羅吊屈原」 「競渡詩」 「五月五日題」 「吊三閭」
6월	小暑 大暑	삼 복	복, 모래찜질, 복달임, 모깃불.	

		유무	유두천신, 천렵, 물맞이, 전답제, 모내기, 김매기 춤, 유두음.	「流頭後日作」 「霽後城主送詩及酒因用其韻」
7월	立秋處暑	칠 석	칠석고사, 두레 길쌈, 오작교.	「七夕賦]
8월	白露 秋分	추 석	송편 빚기, 씨름, 벌초, 추석차 례, 거북놀이, 소먹이놀이, 근친 (반보기), 강강술래, 달맞이, 성 묘, 농악.	「中秋梨花盛開」 「中秋日有作」
9월	寒露霜降	중 구	중양절, 중양제사, 과거, 국화전, 단풍놀이.	「有贈」 「秋曉作」
10 월	立冬小雪	상 달	말날, 시제, 성주고사.	
11 월	大雪冬至	동 지	동지고사, 동지차례, 동지 팥죽 먹기, 달력 주고받기.	「冬至」 「至日示景范」 「至後日」 「至日示景范」 「至日贈別仲明還覲」
12 월	小寒 大寒	선 달 그 믐	납일, 제석, 묵은세배, 나례, 수 세, 참새잡기, 엿 고기, 장 담그 기, 환약 만들기.	「臘前三白」「臘前三白」

김인후의 시 작품들 중에 세시관련 풍속시는 약 52수가 있다. '正月' 관련 시는「正月朔日書」,「上元夕」,「戊申上元奉寄瀟灑園」,「己酉上元奉寄瀟灑園」,「遠期呼韻」5수,'立春' 관련 시는「立春日作」1수,'踏靑節' 관련 시는「宋上舍求和贈言錄中韻」,「上巳踏靑」2수,'寒食'관련 시는「擊毬賦」,「寒食日作」,「觀擊毬」3수,'초파일'관련 시는「觀燈」1수,'端午'관련 시는「競渡」,「汨羅吊屈原」,「競渡詩」,「五月五日題」,「吊三閭」5수,'流頭'관련 시는「流頭後日作」,「霧後城主送詩及酒因用其韻」2수,'七夕'관련 시는「七夕賦]1수,'仲秋節'관련 시는「中秋梨花盛開」,「中秋日有作」2수,'仲陽節'관련 시는「有贈」,「秋曉作」2수,'冬至'관련 시는「冬至」,「至日示景范」,「至日前別仲明還覲」5수,'釋奠日'관련 시는「釋奠日作」,「釋奠日作」2수,'臘日'관련 시는「臘前三白」,「臘前三白」2수와 帖子는'春帖'4수,'端午帖'8수,'延祥帖'3수,'延祥詩'3수이다. 이렇게 김인후의 작품에는 풍속시에 관한 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 작품들 속에는 김인후가 경험하고 관찰한 당대의 세시 때 행해졌던 풍속들이 형상화되어 있고, 그가 세시에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관히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김인후의 작품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의 풍속시에 담긴 그의 정신세계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思惟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풍속시는 전시하였듯이 세시절기에 행해졌던 민속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의식주, 생업활동 등 선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절기에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시 절기를 나누어 살펴보고, 궁중에서 행해졌던 侍從臣의 춘첩, 단오첩 등에서 歲時 認識을 살펴보고, 민간 절기풍속에 대한 인식태도 및 기타 세시풍속이라 생각되는 시들을 분석하여 그가 갖는 사유관을 찾아보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Ⅱ장 세시풍속시에서 名節 관련 세시인 정월, 한식, 단오, 중추절의 풍속시와 辟邪 관련 세시인 입춘, 답청절, 유두, 동지의 풍속시와, Ⅲ장 기타 풍속시

인 석전일과 납일 관련 시를 살펴 김인후의 사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풍속시에 사용된 시어의 典故, 표현의 수용과 형상화 기법, 주제를 살펴보고, 그의 사상과 문학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 Ⅱ. 歲時風俗詩

### 1. 名節 관련 세시풍속시

名節은 오랜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 名日을 말한다. 옛날에는 계절에 따라 佳日 또는 佳節이라 하여서 좋은 날을 택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이것이시간의 호름에 따라 명절이 된 것이다. 「農家月令歌」에 의하면 夏禹氏 오백 년은 寅月인 1월을 설로 삼았고, 周나라 팔백 년은 子月인 11월을 설로 삼았으며 지금우리의 설은 하우씨의 역법을 계승한 것이다. 한 해는 24節氣로 나눠지는데 명절은 절기와 구분되어 그 계절마다 의미 있는 날을 택하여 정하여진 것이다. 대개 명절로는 정월의 설날과 대보름, 2월의 한식, 4월의 초파일, 5월의 단오, 6월의 유두, 7월의 百中, 8월의 秋夕, 11월의 동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제삿날 외에 철을 따라 사당이나 先擎에 차례를 지내는 설날・한식・단오・추석・重九・동지 따위를俗節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도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天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말날(午日)과 降神日이 있었으며, 11월에는 腦享日과 그믐날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다. 「東國歲時記」에는 四名節이라 하여 正朝・한식・단오・추석을 들었고, 여기에 동지를 더하여 五名節이라 하였다.》이 장에서는 사명절인 정월, 한식, 단오, 중추절로 나누어 김인후의 명절 관련 세시풍속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지는 벽사와 관련이 깊으므로 벽사 관련 풍속시 장에서 논의하겠다.

<sup>9)</sup> 今之與正朝端午寒食秋夕爲四節祀卽東俗也, 朝家則幷冬至爲五節享. (洪錫謨, 『東國歲時記』 (『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17면.)

#### 1.1 正月

正月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말한다. 정월초하루에 시작되는 새해의 의미는 上元까지 지속된다. 매해 정월이면 도성과 지방에서 箋文을 올려 새해를 축하드리고, 百官들은 임금께 세배하며 안부를 여쭙는다. 公卿과 宰相들의 집에는 해당관아의 하급 관리들과 하인들이 歲ৃ剛單子를 바치므로 대문 안에 小盤을 마련해 놓고 이를 받는다.10) 여기서는 정월에 해당하는 정조·상원의 풍속시를 살펴보겠다.

먼저 正朝는 元旦으로 설날 아침을 말하며, 歲旦·元辰·元朝·正旦이라고 한다. 각종 歲時記들에서는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의 뜻인 慎日<sup>111)</sup>로 표현한다. 종가에서는 설날에 사당에서 參禮를 지낸다. 설날은 나라 풍속에 중요한 名日이므로 비록單酌을 올리더라도 제수 품수는 별도로 성대히 준비하되, 일반 차례의 예와 같지않게 했다.<sup>12)</sup> 이렇게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명절로 다른 어느 명절보다더 특별한 날로 여겼다.

다음은 정월 초하루인 설에 쓴 시이다.

天地三陽泰 천지는 삼양의 태쾌요

乾坤四德元 건곤은 사덕의 元이네.

鷄鳴服舜善 닭이 울자 순임금의 선을 행하고

日出誦堯言 해가 뜨자 요임금의 말씀 외우네.

物物分條理 사물마다 조리를 나누면

<sup>10)</sup>每正月,中秋進箋賀正,百官歲謁庭候.至於卿宰之家,各司胥隸,投呈歲卿單子,故門內置小盤受之.(趙雲從,「歲時記俗」,『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87면.)

<sup>11)</sup> 정월초하루는 달이 극도로 이지러진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묵은해와 작별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이므로 통과의례의 전이기에 해당된다. 기존의 질서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질서에 통합되기 전까지 전이기를 거치게 되는데, 새로운 질서와 상황에 순조롭게 통합되려면 이 전이기를 삼가고 조심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설은 愼日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sup>12)</sup> 宗家於正朝 行參禮於祠堂. 但正朝, 乃國俗所重之名日, 雖用單酌, 而饌品則別爲盛備, 毋若尋常茶禮之例. (黄宗海, 『朽淺先生集』 卷6(『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민속원, 2004), 105면.)

生生自本根생생의 이치 본래 뿌리네.文王昭在上문왕은 밝게 위에 계시니一國仰鴻恩온 나라 큰 은덕 우러르네.13)

김인후는 元日에 堯임금・舜임금・文王의 덕을 기린다. 首聯에서 천지의 형상은 '地天泰卦' 즉 하괘는 乾卦(☰)고 상괘는 坤卦(☲)로 '墨'가 된다. 즉 11월에 하나의 陽爻가 처음으로 생겼다가, 1월이 되면 세 개의 양효가 下卦에 자리하는 泰卦를 이루기 때문에 '天地三陽泰'이라 하였다. 따라서 1월을 말하고 있다. 『周易』의「乾卦傳」에 四德은 元・亨・利・貞을 말하는데, 원은 生物의 처음이므로 四時에 있어서는 봄이 된다. 결국 정월의 첫날인 원일을 주역으로 풀이하고 있다.

頷聯에서 김인후는 임금이 본받아야 할 대상을 '堯・舜'으로 보고 있다. '요·순' 은 천하를 태평성대로 이끈 표본이 되는 분들이다. 보통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임금에게 상소를 할 때 '요·순'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김인후와 더불어爲政者들이 임금께서 '요·순'과 같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頸聯은 다시 주역의 이치를 통해서 세상이 순리대로 운행되길 바라는 내용이다.

尾聯은 문왕이 밝게 上天에 계시니 백성들은 그의 은덕을 바란다고 하여 태평성 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울러 임금이 그 덕을 이어 받아 백성들을 잘 보살핀다는 내용이다. 김인후는 임금이 요·순과 문왕의 정신을 본받아'仁'의 정치를 하여 군자의 도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소망하고 있다. 이는 김인후가 백성들과다 같이 잘 사는 태평성대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上元은 정월 보름이라고 하며, 새해 첫 滿月이 되는 날이다. 달이 일 년 중 가장 밝은 날이기도 하다. 상원은 농경을 위주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설날만큼이나 중요한 세시로 여겼으며, 그만큼 성대하게 명절을 보냈다. 상원이 중요한 명절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세시풍속이 대보름을 전후하여 집중되어 있다. 옛날에는 일상생활에

<sup>13)「</sup>正月朔日書」,『河西全集』卷8.

서 달과 관계가 깊었는데 이날을 기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다. 상원의 행사는 洞神에게 제사를 올려 마을의 안녕과 농사가 잘되기를 비는 주로 각 개인의 길흉 과 건강, 풍농을 기원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김인후도 정월을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여겨서인지 이날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가 몸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집안사람에게 내일은 보름날이니 제육과 술을 정성껏 장만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사당에 奠을 올리라 하고 다음날 제사에 참여하였다.14) 김인후는 이날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병환이 위독해져 명종 15(1560)년에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정월의 풍속을 그냥 넘기지 않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점은 그 당시 정월 세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졸기에 "『家禮』에 유념하되 상례와 제례를 더욱 삼갔으며, 시제와 절사를 당해서는 비록 앓는 중이라도 반드시 참석했고, 時俗의 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가능이 평소 그는 세시마다 행해졌던 풍속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정월뿐만 아니라 다른 세시도 중요하게 인식했다. 즉 그 당시 도학자들이 민간 세시풍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풍속으로 받아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무신(1548)년 상원에 소쇄원에 보내는 시이다.

瀟灑園中瀟灑翁 소쇄원 안에 소쇄옹이

一年春事占東風 한 해 봄 일을 동풍으로 점치네.

梅花消息渾依舊 매화 소식은 변함없이 예전의 그대로니

爲問人心同不同 인심 또한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네.16)

<sup>14)</sup> 正月戊辰, 蹔覺氣候異常, 進以藥物, 詔家人, 來日爲上元, 敬備牲酒, 可令子女行奠于祠宇己巳, 夙興整冠危坐, 以候祭祀之頃, 因謝言語. (「家狀」, 『河西全集附錄』卷1.)

<sup>15)『</sup>家禮』, 尤謹喪祭, 遇時節之祭, 雖病必親, 不撓於時俗禁忌. (『明宗實錄』卷26, 明宗 15年 1月 壬午.) 이하 본문에는 '실록'이라 하였다.

<sup>16)「</sup>戊申上元 奉寄瀟灑園」、『河西全集』卷6.

김인후는 정월 보름에 벗인 梁山甫를 생각하면서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인다. 起句에 '瀟灑園'은 김인후의 벗인 양산보(1503~1557)가 거처했던 곳이다. '瀟灑'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출전은 孔德璋의 「北山移文」에 나오는 말로 양산보가 자신의 정원 이름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호로도 사용하였다.17) '瀟灑翁'은 이러한 명칭을 붙인 정원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양산보의 호이다. 양산보는 조광조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己卯士禍로 인해 조광조가 賜死되어서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게 되면서 소쇄원에서 삶을 보내게된다. 이 소쇄원은 김인후와 양산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던 곳이며, 여러 문인들과의 교류 장소이기도 하다. 김인후는 소쇄원을 왕래하면서 소쇄원 관련 작품을 많이 남기는데 대표작으로 「소쇄원 48詠」이 있다.

承句는 '소쇄옹'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점을 치고 있다. 이는 정월에 한해의 운을 알아보기 위해 점을 치는 풍속이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한해 농사의 일을 점쳐 보곤 했다. 한 해의 시작은 봄의 계절이 가장 먼저 알리며,이 시기는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때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던 백성이 한 해의시작과 동시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東風'에 점쳐본다는 것은 아마 날씨의 맑음과 흐림을 보는 것으로, 정월 아침의 날씨가 맑으면 풍년이 되고 흐리면 흉년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

轉句와 結句는 김인후가 양산보에게 매화가 피는 날은 여지없이 오고, 봄의 계절도 예전처럼 찾아오는데, 今年을 대하는 '人心'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 여기서 '인심'을 첫째, 양산보의 마음으로 본다면 김인후가 소쇄원에 있는 양산보에게 그의생활이 어떤지를 묻는 것이다. 이때는 김인후가 인종 승하 후에 鮎巖村에 우거했을 당시여서 양산보와 떨어져 지냈던 시기이다. 그래서 김인후는 소쇄원에 거처하는 양산보의 安危가 궁금했을 것이다.

둘째, '인심'을 백성의 마음으로 본다면, 백성들의 생활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는지

<sup>17)</sup>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우리말 글』 第25輯, 우리말글학회, 2002), 270면.

를 양산보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인후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시에서 보이는 '인심'은 후자의 내용에가까운 것 같다. 이날 실록에 "호남 한 도는 본디 풍요한 땅이었는데도 근래에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곤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18》고 하였고, 1월 11일에도 "각도가 失農이 매우 심하니, 각 고을에서는 서계를 빠뜨리지 말도록 하라."19》고 하였다. 그 당시 湖南의 상황은 흉년으로 좋지 않았다. 때문에 김인후는 흉년으로 인해어려워진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인후는 정월 보름에 벗인 양산보를 그리워하면서, 흉년으로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렵게 지낼 백성들을 걱정하는 愛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시는 기유(1549)년 상원에 소쇄원에 보내는 시이다.

上元今歲雪偏多 올해 상원에는 유달리 눈이 많아

月色農家未見何 농가에서 달빛을 못 보니 어찌하겠는가?

取醉獨眠誰與語 취하면 홀로 자니 누구와 함께 얘기하겠는가?

起看瓊蕊玉飜柯 일어나 옥가지에 구슬 꽃이 반짝이는 것을 보네.20)

김인후는 정월 보름에 보름달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心情을 보이며, 곁에 없는 양산보를 그리워하고 있다. 起句는 기유년 정월 보름날에 눈이 많이 내렸음을 알수 있다. 실록에 "밤에 겹달무리가 졌다. 양이와 관이 있었다. 白氣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무리를 꿰고 뻗쳤다가 곧 사라졌다."21)고 하였다. 여기서 '白氣'를 통해서 눈이 내렸음을 알 수 있다.

承句는 김인후가 정월 보름에 눈이 많이 내려서 달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sup>18)</sup> 湖南一道, 本以富饒之地, 近來凶荒連仍, 民生困瘁極矣. (『明宗實錄』卷7, 明宗 3年 1月 壬午.)

<sup>19)</sup> 各道失農尤甚, 各官無遺書啓. (『明宗實錄』卷7, 明宗 3年 1月 戊子.)

<sup>20)「</sup>己酉上元 奉寄瀟灑園」,『河西全集』卷6.

<sup>21)</sup> 夜, 月暈, 兩珥, 冠重暈. 白氣, 自西方至東方, 貫暈, 暫時而滅. (『明宗實錄』卷9, 明宗 4年月 乙酉.)

있다. 정월에 보름달을 보는 것은 달맞이 풍속으로, 이날 떠오르는 달을 보고 소원 을 빌기도 하고, 달의 색깔과 달이 떠오르는 방위에 따라 1년 농사를 미리 점치기 도 하였다. 『동국세시기』에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달맞 이라고 하며 남보다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재수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달빛으로 한 해의 기후 상태를 예측하는데, 달빛이 붉으면 그해에 가뭄이 들 징조이고, 희면 비가 많이 올 징조라고 한다. 또 달이 뜰 때의 모양, 크기, 출렁거림, 뜨는 위치의 높고 낮음 등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한다. 달의 윤곽과 네 방향의 두께를 보고 각각 그 방향에 해당하는 지방의 일 년 농사를 점치기도 하는데, 그 둘레가 두터우면 풍 년이 들고 엷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며 이러한 예측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다."22)고 한다. 이날 朝廷에서도 보름달 그림자를 살펴서 기후를 관측하였다.23) 이 렇게 정월에는 달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였다. 때문에 김인후는 이날 눈이 많이 와서 보름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입장이 아니지만,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 음인 것이다. 실록에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곤궁에 허덕이고 국고는 고 갈되었습니다. 2~3년 이래 비단 三農만 부실했을 뿐 아니라 綿花마저 공급이 끊 어졌습니다."24)는 기록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는 흉년이 들어 민심이 좋지 않았다. '農家'는 정월의 풍습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농경사회였던 예전에는 농사의 比重이 컸으므로 '농가'라는 시어를 통해 정월이 중 요한 세시임을 알 수 있다.

轉句는 김인후가 정월에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漢陽歲時記』에 "15일 아침 일찍 차가운 술을 마시니 이를 귀밝이술이라고 하는데, 귀먹는 것을 예방할 수 있

<sup>23)</sup> 望月影測候. 簡儀臺大圭表影長二丈九尺七寸, 小圭表影長五尺八寸五分半. (『明宗實錄』卷7, 明宗3年1月辛卯.)

<sup>24)</sup> 近因凶荒, 生民困瘁, 國儲虛竭. 數三年來, 非徒三農不實, 綿花絶乏. (『明宗實錄』卷9, 明宗 4年 1月 戊子.)

다."25)고 하는 정월 보름날의 귀밝이술 풍속이다. 이날 김인후도 정월 보름을 맞아술을 구해 마셨던 것 같다. 그 당시 김인후는 술을 같이 마실 이도, 얘기 할 이도 없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이때 김인후는 점암촌에 우거했을 당시여서 외로운 생활을 보냈다. 그의 시「魚巖雜詠」은 술에 취한 모습, 백발의 모습, 친구도 없이 혼자 보내는 모습의 초췌한 점암촌 생활을 볼 수 있다.26) 때문에 홀로술을 마시는 김인후는 벗인 양산보가 너무 그립지만, 지금 그의 곁엔 같이 자고,이야기 할 친구가 없는 현실을 한탄스럽게 여기고 있다.

結句는 김인후가 술에 취해서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할 때 나ant가지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았다. 여기서 '옥가지'는 이날 내린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서 마치 눈 색깔 이 옥 같다는 것이며, '구슬 꽃'은 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드름이 달빛에 비치어 마 치 구슬처럼 반짝여 보여 '구슬 꽃'이라고 하였다. 이날 김인후는 외로운 마음을 달 래며 새벽이 되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정월을 보냈다.

김인후는 정월에 양산보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데, 그의 시에는 양산보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또 그는 당시 어려운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이며, 백성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주시했다. 즉 김인후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愛民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sup>25)</sup> 十五日, 早飲冷酒, 曰聰耳酒, 言可以治聾也. (權用正, 『漢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 I』, 민 속원, 2003), 152면.)

<sup>26)</sup> 몸에 걸친 옷섶에 탁주 자국 흥건하니, 풍광이 날 배부르게 실컷 취하게 해 읊조리네. 백발이라 거울을 자주 보기도 부끄러워, 산의 누정에 홀로 기대 노상 늦게 일어나네. (濁 酒淋漓身上衣, 風光饒我醉吟時, 羞將白髮頻看鏡, 獨倚山樓睡起遲. (「魚巖雜詠 其三(次趙甥 韻)」, 『河西全集』卷6.))

#### 1.2 寒食

寒食은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 이날 불을 금하여 찬밥을 먹기 때문에 한식이라 한다. 이날에는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고, 사당에 차례를 지낸다. 한식의 차례는 사당에 神主가 있는 집에서는 寒食告由를 하는 날로, 농사일을 시작할 때 풍년을 빌던 農神信仰이 조상숭배사상과 결합된 풍속이다. 오늘날에는 始祖와 先祖에게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또 한식을 맞아 조정에서는 한식제를 지냈다.27)

한식에는 불의 사용을 금지했다. 한식날부터 농가에서는 채소 씨를 뿌리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든다. 때문에 불을 금하는 것은 播種期에 火氣로 인하여 곡식이 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미와, 한식을 전후하여 일기가 건조한 시기이므로 화재를 방지하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또 중국에서는 이날의 풍속이 春秋時代의 隱士인 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것을 가엽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며,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 불을 금한 데서 왔다고 한다. 중국 춘추시대 齊나라 사람들은 이날을 冷節이라고 불렀고 혹은 이날 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음식을 미리 익힌다는 뜻으로 熟食이라고도 하였다.28)

고려시대에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의 하나로 중요시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禁刑을 실시했다. 한식에 비가 내리면 '물한식'이라고 하며,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 不祥事가 일어난다는 풍속이 있다.

다음 시는 한식에 쓴 시이다.

<sup>27)</sup> 上親行寒食祭於孝敬殿, 仍行朝上食. (『中宗實錄』卷70, 中宗 26年 3月 甲午.), 上詣孝敬殿, 行夕上食, 卽還昌德宮. 將行寒食祭故也. (『中宗實錄』卷72, 中宗 27年 2月 戊戌.)의 실록 내용을 보면 조정에서 한식제를 했던 기록이 보인다.

<sup>28)</sup> 齊人呼爲冷節, 又曰熟食.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16 면.)

서울이라 동풍 구맥에 부니 洛陽東風吹九陌

煙光澹澹天字寬 연기 빛은 해맑고 하늘은 툭 트였네.

수양버들 땅에 처져 푸른 실 기다랗고 垂楊顰地綠絲長

日暖啼鳥磬千般 날씨 따뜻하여 우는 새는 소리가 갖가지이네.

飛甍鱗次百萬家 나는 듯한 솟을대문이 수많은 집으로 이어지고

누런 발 푸른 장막에 붉은 난간이 빛나네. 黃簾綠嘉輝朱闌

城中光景藹極目 성안의 광경 또한 그지없이 무르익어

나는 꽃 춤을 추며 바람 끝에 맴도네. 飛花舞逐回風端

長繩百尺掛高樹 백 척 되는 긴 끈이 높은 나무에 걸렸는데

蛾眉綠鬢何蹒跚 나비 눈썹 푸른 귀밑 어찌 그리 사뿐사뿐한가?

**玉手爭攀飛上天** 옥수로 부여잡고 하늘 향해 날 적에

雲間瓊珮鳴珊珊 구름 사이 구슬 패물 쟁글쟁글 소리가 나네.

豪家少年五花驄 세도가의 소년들은 오화마를 타고

격구하면서 장강 언덕까지 뛰어 나가네. 驚毬躍出長江干

집마다 술을 들고 북망산에 제사지내니 家家持酒祭北邙

紙錢飄空丘壟殘 지전이 허공에 날려 구롱에 떨어지네.

流傳昔日介子推 전해 오는 이야기는 옛날에 개자추가

일편단심 임금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는데. 赤心與主同艱難

終然論賞獨不及 상을 논한 그날에 그만 홀로 누락되니

偷生苟得心非安 구차스레 산다는 것이 어찌 마음에 편했겠는가?

長歌一曲上綿山 긴 노래 한가락에 면산에 올라가서

훨훨 타는 성낸 불에 몸을 던져 죽었네. 可憐烈火燒芝蘭

忘恩背德非人情 은덕을 저버리는 것은 인정이 아니니

達士豊肯會塵官 달사는 어찌 그 벼슬 따위를 탐내겠는가?

空將縞素更何益 헛되이 상복을 입는 것이 어찌 유익하겠는가?

無端涕泗徒汍瀾 끝없이 눈물 콧물 흘려 봐도 부질없네.

青煙忽斷四境中 푸른 연기 갑자기 사방에 끊어지니

爲惜義烈隨灰乾 의열이 재를 따라 사라질까 애석해 하네.

천년 동안 풍속을 이루었으니 遺風千古久成俗

乃用冷飯充飢餐 이날에는 찬밥으로 주린 배를 채우네.

遂作辰名揭佳節 한식이라 이름 지어 명절로 선포하니

節同世異殊悲歡 세대가 바뀔수록 슬픔도 달라지네.

愚者銜杯作遊宴 어리석은 자는 술 마시며 잔치놀이를 즐기고

識者念昔爲長嘆 식자는 옛날을 생각하여 한숨만 길게 내쉬네.

誰云詞人少膽氣 누가 사인은 담이 적다고 말하는가?

居然壯髮衝危冠 귀밑털이 문득 솟아 관머리를 찌르는 것 같네.

坐想丹忠意何極 앉아서 일편단심으로 생각하니, 뜻이 어찌 다하겠는가?

日暮軒畔生微寒 난간 밖에 해 저무니 가는 추위만 감도네.29)

김인후는 한식의 情景에 대해 읊으면서, 임금에 대한 의리정신을 강조한다. 1연의 '洛陽'은 서울인 한양을 말한다. '東風'은 봄바람으로 한식은 양력 4월쯤이므로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한다. 한식에는 도성에서 길가에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바람을 따라 하늘까지 피어오르고 있다. 이는 한식에 나라에서 새 불을 만들어 썼던 풍습이다. 한식에는 불을 바꿔, 조정에서 近臣들에게 불을 내려줬다.30) 그리고 새 불을 만들기 전에 어느 기간 동안 묵은 불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禮俗이 있다. 근신에게 불을 내려준 것은 조선시대 內兵曹에서 버드나무를 뚫어 불을 만들어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그 불씨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 주던 풍속이다. 그래서 연기 빛이 맑은 것은, 새로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기의색이 뿌옇지 않고 맑다는 것이다. 이때 동풍이 불어 하늘 위의 구름이 바람을 타고떠내려가 하늘이 툭 트여졌다. 이날 봄바람이 마을 구석구석에 불어 봄의 따뜻한기운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sup>29)「</sup>寒食日作」,『河西全集』,卷4.

<sup>30)</sup> 寒食改火,國朝賜火於近臣. (趙雲從,「歲時記俗」,『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 민속원, 2003), 103면.) 조선 시대에 불을 새로 마련하는 뜻으로, 나무를 마찰하여 새 불을 내어 묵은 불과 바꾸는 의식이다. 兵曹에서는 매년 다섯 차례, 立春日·立夏日·季夏의 土旺日·立秋日·立冬日에 불을 새로 만들어 각 殿宮에 진상하였다. 그 다음에 대신의 집이나 모든 관아에 나누어 주어 묵은 불씨와 바꾸게 하였으며, 각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2연에서 6연까지는 한식의 마을 정경을 볼 수 있다. 한식에는 踏靑하기 좋고, 버드나무는 잘 자라고, 새가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좋은 때이다. 또 날씨가 따뜻해서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山水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이기도 하다. 이런 한식을 맞아서 도성 안의 모습이 봄의 싱그러운 기운으로 활기찬 모습이다. 3연의 '나는 듯한 솟을대문'은 높이 솟은 대문의 정형화 된 물체를 하늘 위를 날고 있는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또 4연의 '나는 꽃 춤을 추며'는 마을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으로 비유하였다. 다음 구는 나무에 긴 끈으로 된 그네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5연과 6연은 그네 타는 여인의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그네 타는 여인의 눈썹을 '나비 눈썹'이라고 하여눈썹 모양을 나비로 비유하여 얇고 단정한 눈썹을 표현하였다. 그네 타는 여인의 손을 '玉手'라고 하여 맑고 하얀 손을 '옥'으로 비유하였다. 그네 타는 여인의 장신구가 서로 부딪쳐 '쟁글쟁글'한 소리를 내어, 그네 타는 여인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한식에는 그네 놀이의 풍속으로 더욱 홍겨운 때를 보냈다.

7연은 한식에 세도가의 소년들이 擊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豪家'는 세도가를 말하는데 재산이 많고 권세가 당당한 가문을 말한다. 격구는 주로 한식이나 봄철에 하는 놀이로 젊은 武官이나 민간의 상류층 청년들이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공채로 공을 치던 무예이다. 여기서 '세돗집 소년'과 '五花馬'가 보이는데, 격구 놀이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분상 높은 사람들이 격구 놀이를 즐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연은 한식에 사람들이 술을 들고 각자 성묘를 하러 가는 모습이다. 한식에는 사람들이 모두 산소에 가서 절을 한다.<sup>31)</sup> 서울 사람들이 묘를 찾는 날은 설날, 한식, 단오, 중추의 사명절로 이 중 한식과 중추가 제일 성하여 사방 교외에서 성묘객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sup>32)</sup> 『동국세시기』에 "중국 당나라 사람 鄭正則의 『祠享儀』에

<sup>31)</sup> 爲寒食, 人皆上丘墓拜. (趙秀三, 「歲時記」, 『秋齋集』(『조선대세시기 I 』, 민속원, 2003), 46 면.)

<sup>32)</sup> 都人上冢用正朝寒食端午中秋四名節,寒食中秋最盛,四郊士女綿絡不絶.(柳得恭,『京都雜

"옛날에는 산소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공자께서 절기를 따라 묘를 보고 望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나오므로 묘제는 대체로 이로부터 시작된 듯하 다. 또 唐나라 玄宗(재위 기간: 713~741) 때에 勅命을 내려 한식날 성묘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 전 시대인 五代 때 後周에서는 한식날 야외에서 제사를 지내고 紙錢 을 불살랐다고 한 것을 보면 한식날 묘제 지내는 풍속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 다."33)고 하였다. 한식의 묘제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신라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邙'은 북망산으로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의 北邙山에 무덤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다음 구에서는 '紙錢'을 불로 태우는 풍속이 나온다. 한식에는 대나무 가지에 지전을 매달기도 했는데, 이 날 곳곳마다 지전이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실제로 사용하는 돈을 불로 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성묘할 때 지전을 태우는 것은 拜掃文化의 또 하나의 형식이다. 성묘할 때 지전은 內世와 저 세상 사이에 통용되 는 信的인 물질이다. 또 사람들은 지전을 태우면서 집안 대대로 평안하기를 기원했 다.34)

9연에서 13연은 한식의 유래인 介子推에 대한 이야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晉나라의 文公이 국란을 당하여 개자추 등 여러 신하를 데리고 公子 重耳의 신분으로 19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망명하여 지냈다. 문공이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개자추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구워먹여 살렸다. 후에 문공이 본국으로 돌아와 즉위한 다음, 자신을 모시며 고생한 사람을 논의하였는데 개자추의 공을 잊고 豫을 주지 않았다. 이에 개자추가 어머니를 모시고 綿山에 은거하였다. 뒤늦게 문공이 산으로 찾아가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는데, 개자추는 끝내

志』(『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82면.)

<sup>33)</sup> 按唐鄭正則祠享儀云古者無墓祭之文孔子許望墓以時祭祀, 墓祭盖出於此. 又按唐開元勅許寒 食上墓五代後周寒食野祭而焚紙錢, 寒食墓祭自唐而始也.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 시기Ⅲ』, 기산칼라, 2007), 216면.)

<sup>34)</sup> 김승심,「한・중 시가 속에 표현된 歲時文化」(『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국인문학회, 2007), 449면 참조.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껴안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에 문공이 크게슬퍼했다.35) 문공은 산 아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가 불에 타 죽은 날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익히지 말고, 미리 만들어 놓은 찬 음식을 먹게 했다. 이날이 바로 한식이다. 또 불에 타 죽은 사람에게 더운밥을 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하여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도 한다.

개자추는 진나라의 충신으로 자기 살을 도려내어 문공을 살려냈다. 그러나 문공은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생명의 恩人인 개자추의 의리를 져 버린다. 10연에서 김인후는 개자추가 문공을 떠나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하고 있다. 즉 김인후는 개자추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데, 자신도 그런 처지에 놓이면 개자추처럼 할수 있다는 마음을 보인다. 12연은 개자추의 義氣의 마음에 대한 것으로, 문공에 대한 의기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즉 사람들이 모두 개자추의 정신을 본받아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13연은 김인후가 문공에게 좋은 충신을 잃은 뒤에 슬퍼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굳건하게 피력하고 있다.

17연은 한식에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다. 이날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식은 슬픈 유래가 전해 내려오지만 풍속으로 이어져 오면서 슬프게만 보내지 않고 하나의 명절처럼 즐겁게 보냈다. 한식은 어느 해나 淸明節 바로 다음날이거나 같은 날에 든다. 청명과 관련된 속담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게 있는데, 청명과 한식이 겹치거나 하루밖에 차이나지 않아 생긴 속담이다. 때문에 이때는 계절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놀이가 이루어지기에 적합했고, 답청의 풍속도 있었기에 교외에 나가 자연 속에서 놀이를 즐길

<sup>35)</sup> 晉侯賞從忘者,介之推不言祿,祿亦不及.推曰獻公之子九人,唯君在矣.惠懷無親,外內棄之,天未絶晉,必將有主,主晉祀者,非君而誰,天實置之,而二三子以爲己力,不亦誣乎? 竊人之財,猶謂之盜,況貪天之功,以爲己力乎?下義其罪,上賞其姦,上下相蒙,難與處矣.其母曰 盍亦求之,以死誰懟.對曰 尤而効之,罪又甚焉.且出怨言,不食其食.其母曰 亦使知之若何?對曰言,身之文也,身將隱,焉用文之,是求顯也.其母曰 能如是乎?與女偕隱,遂隱而死.晉侯求之不獲,以縣上爲之田曰 以志吾過,且旌善人.(『春秋左氏傳』「僖公」24年)

수 있었다. 한식은 절기의 기후로 볼 때 시기적으로 한창 농사일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고, 우울하고 어둡게 한식을 보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인후는 이날 잔치를 벌여 노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세시 날과 다르게 술을 마시지 않고, 整肅하게 한식날을 보내려고 했다. 이것은 김인후가 한식의 유래를 생각하여 본래의 의미를 기리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18연을 보면 김인후는 이날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사람들은 글공부만하는 문인을 일러 용기가 없는 자라고 하지만 김인후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머리칼문득 솟아 관머리를 찌르는 것처럼 결정적인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연에 '丹忠'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을 말하는데, 임금에 대한 김 인후의 忠心이 보이는 곳이다. 여기서 그는 임금에 대한 節義意志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도 개자추와 같은 忠臣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구는 날이 저물자 寒氣로 인해 쌀쌀해진 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앞부분은 한식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여러 풍속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끝부분으로 갈수록 앞부분과 다른 沈潛된 대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식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반된 문화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한식의 성격을 시에서 볼 수 있다.

김인후는 한식의 마을 정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색채 대비와 비유의 표현으로 한식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한식의 풍속인 격구놀이, 성묘, 지전 태우기, 그네 타기 등의 한식에 행해졌던 풍속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는임금에 대한 충절과 의리정신을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 1.3 端午

端午는 음력 5월 5일로 陽數인 5가 겹쳤다고 하여 吉日로 여겼다. 단오의 '端'은

처음이라는 첫 번째를 뜻하고, '午'는 五로 다섯의 뜻과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 단오는 '戌衣日·水瀨日(수릿날)', '天中節', '重午節', '端陽'이라고도한다. 단오는 일 년 중에 가장 陽氣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왔다.

단오는 屈原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낸 준 것이 단오의 풍속으로 변하였다. 중국 楚나라 굴원은 여러 차례 讒訴를 받아 결국 江南에 유배되었고, 결국 자기의 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여 汨羅水에 빠져 죽었다. 바로 그날이 5월 5일이었는데, 그 후 해마다 굴원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단오로 정착되었다.

단오에는 대궐에 단오첩을 올리고, 집집마다 사당에 앵두를 바친다. 여자아이들은 창포 끓인 물로 세수를 하고, 창포로 만든 비녀를 꽂으며, 새 옷을 입는다. 민가의 부녀들은 제각기 옷을 잘 차려 입고 성대하게 치장을 한 다음 모여서 그네뛰기를 한다. 이 달에 영남과 호남의 觀察使들은 절기의 부채를 가지고 와서 임금께 올리고, 조정의 대신들과 친지들에게 증정하며 안부를 물었다.36) 이날은 좋은 옷을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며, 여러 가지 풍속이 행해졌다.

다음 시는 단오인 5월 5일에 쓴 시이다.

角黍哀忠直 각서로 충직을 슬퍼하니

流傳舊俗存 전해오는 옛 풍속이 아직도 남아있네.

冤魂招不得 원혼은 불러도 오지 않으니

何日入脩門 어느 날 수문에 들어가겠는가?37)

이 시는 단오의 유래인 굴원에 대한 내용이다. 굴원의 이름은 平으로 戰國時代 楚나라 사람으로서 武王의 아들 屈瑕의 후대이다. 그는 학식이 높고, 정치적 식견

<sup>36)</sup> 端午,大內進端午帖,家家廟薦櫻桃. 小兒女靧菖湯, 挿菖簪,着新衣. 民家婦女,各靚粧盛餚聚,爲秋千戲. 是月湖嶺伯,師進節箑,贈問朝紳,及于親知. (權用正,『漢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169면.)

<sup>37)「</sup>五月五日題」、『河西全集』卷5.

이 뛰어난 정치가이며, 외교적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초나라의 懷王의 신임을 받아 左徒와 三閭大夫의 중책을 맡아 국사를 담론했고, 법률제정에 참여하였다가 타인들의 모함과 배척에 의해 회왕은 점차 굴원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秦나라가 회왕의 방문을 요청하였는데, 굴원은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회왕이 막내아들 子蘭의 권유에 따라 진나라에 방문하였다가 억류당한 채病死하였다. 그래서 장남 頃襄王이 즉위하고, 막내인 자란이 재상이 되었다. 자란은 아버지를 客死하게 한 장본인이었으므로, 굴원은 그를 비난하다가 또 다시 모함을 받아양쯔강 이남의 소택지로 추방되었다. 유배기간 동안 굴원은 분노하며 문학 창작을시작했는데 작품은 초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을 담고있었다. 그 뒤 진나라에 의해 초나라가 공격당하자 굴원은 절망과 비통을 못 이겨결국 멱라수에 투신하여 죽었다.

김인후는 억울하게 죽은 굴원의 넋을 위로한다. 起句의 '角黍'는 초나라 사람들이 굴원을 哀慕하여 竹筒에다 角黍飯을 담아 물에 던져 제사하던 풍속이다. 이 '각서'를 물에 띄워 굴원의 죽음을 위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서'를 만들어 먹었다. 이 '각서' 때문에 단오를 '수릿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단오를 속된 이름으로 수릿날이라 한다. 수리란 것은 우리나라 말의 수레이다. 이날 쑥 잎을 따다가 짓이겨 멥쌀가루 속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든다.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므로 수릿날이다."38》고 한다. 이 밖에 또 하나의설은 『洌陽歲時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오를 수릿날이라고 한다. 밥을 물의 여울에다 던져 굴삼려를 제사지내기 때문이다."39》고 하여, 이날 밥을 지어 수뢰에 던져 굴원을 제사지냈기 때문에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承句는 굴원을 위로하기 위해 각서를 물에 띄운 풍속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와

<sup>38)</sup> 端午俗名戌衣日, 戌衣者東語車也. 是日採艾葉爛搗入粳米粉發綠色打而作餻, 象車輪形食之, 故謂之戌衣日.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34면.)

<sup>39)</sup> 國人稱端午日水瀨日. 謂投飯水瀨享屈三閭也. (金邁淳, 『洌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135면.)

단오의 풍속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轉句는 단오에 물에 빠진 굴원의 넋을 위해 이날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김인후는 굴원이 죽음에 대한 원통한 마음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서인지 그의 원혼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굴원의 억울한 죽음이 사람들의 위로에도 풀릴수 없는 한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結句에 '脩門'은 大闕이란 말로, 궁에 들어갈 날이 언제인가를 묻고 있다. 이는 굴원이 임금을 보필하던 충직한 신하였던 때처럼 다시 정치를 하고, 왕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늦었고, 불러도 오지 않으니 결국은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단오에는 시를 읊는 풍속이 있는데, 사대부들이 굴원의 죽음에 대한 주제로 시를 많이 읊었다.

김인후는 시에서 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는 굴원 같은 충직한 신하가 안타깝게 죽는 일이 없도록 임금이 是是非非를 잘 가려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 시는 '大殿端午帖'이다.

蒸賓初應律 유빈이 처음으로 율을 응하니

蓂葉五生辰 명협에 다섯 잎이 돋은 때이네.

玉斝香蒲汎 옥 술잔에 향기로운 창포가 뜨고

金盤角黍新 금 쟁반에 각서가 새롭네.

薰風生殿閣 훈훈한 바람은 전각에 불고

薄暑入城闉 엷은 더위는 성문으로 들어오네.

壟上翛翛麥 밭두둑 위 빽빽하게 자란 저 보리이삭은

將秋壽我民 가을 맞아 우리 백성을 잘 살게 하겠네.40)

단오첩은 단오에 각 가정에서 불길한 것을 제거하는 뜻에서 朱砂로 辟邪文을 써

<sup>40)「</sup>大殿端午帖」,『河西全集』卷8.

서 문기둥에 붙이는 글로, 天中符籍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말기까지 觀象監에서 해마다 단오에 이 부적을 임금께 올렸다. 단오부적은 글로 하는 것과 그림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실록에 "상서로운 기운을 맞는 단오첩과 춘첩자를 祖宗朝 때부터 문신에게 제술하게 하는 것은 그 所業을 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즈음 보면 출제하여 짓게 할 때에 문신 중 짓지 않는 자가 많이 있으니 事體에 매우부당하다."41)고 하여 나라에서는 단오첩 짓는 것을 문신들의 의무적인 일로 여겼다.

김인후는 임금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首聯의 '蕤賓'은 十二律의 하나로 오월을 의미한다.<sup>42)</sup> 다음 구의 '蓂葉'은 蓂莢으로 중국 요임금 때 났었다는 전설상의 상서로운 풀이다. 이 풀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하루에 한 잎씩 났다가, 열엿새부터 그믐까지 하루에 한 잎씩 떨어지고, 작은 달에는 마지막 한 잎이 시들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력 풀 또는 책력 풀이라고도 하였다. '蓂葉'의 잎은하루에 하나씩 돋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잎이 돋은 때는 5일이 된다. 즉 단오의 날이 오월 오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頷聯의 '香蒲'는 菖蒲를 말하는데, 단오에는 창포로 창포주를 만들어 마시곤 했다. 김인후는 평소에 술을 즐겨 마셨기 때문에 창포주를 마시며 단오를 보냈던 듯하 다.43) 단오에 창포주를 마셨던 것은 창포의 좋은 향이 온 몸에 퍼져서 자신의 몸 과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또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창 포물에 얼굴을 씻으며, 창포 뿌리를 깎아 그 끝에 연지를 바른 다음, 머리의 여기 저기에 꽂아 전염병을 막았다.44) 이는 모두 나쁜 귀신과 질병을 쫓을 수 있다고 믿 는 데서 비롯되었다. 다음 구는 단오에 만들어 먹었던 '角黍'에 대한 내용이다. '각

<sup>41)</sup> 迎祥·端午·春帖子, 自祖宗朝, 使文臣製述者, 欲其不棄所業也. 近觀文臣, 於命題時, 多有不作者, 於事體甚異. (『中宗實錄』卷87, 中宗 33年 4月 戊辰.)

<sup>42)</sup> 仲夏之月, 律中蕤賓, (『禮記』「月令」)

<sup>43)</sup> 그가 평소 술을 즐겨 마셨다는 부분은 "史臣曰 麟厚少負才名, 常以詩酒自娛." (「年譜別本」, 『河西全集續編』卷1.)에서 알 수 있다.

<sup>44)</sup> 端午日, 童子皆着新衣, 洗面於菖蒲水, 又削蒲根, 塗臙脂於其端遍揷頭髮, 以辟瘟氣. (趙雲 從, 「歲時記俗」, 『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110면.)

서가 새롭다'는 것은 한 해가 지나고 올해 처음 새로이 맞이하는 단오이기 때문에 새롭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왕이 즉위한 다음 맞이한 단오라는 의미로보인다.

頸聯은 단오 때가 되어 궁궐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마을에는 더운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단오는 계절적으로 여름이 가까워지는 날이다. 실록에 "더구나지금은 천중절이어서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하여 깃발을 휘날리며 열기 속을 치닫는 것은 실로 놀이에 가까운 것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재변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45)는 내용으로 보아 단오가 되면 더위가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尾聯은 온 들에 빽빽하게 자라있는 보리이삭을 묘사하고 있다. 김인후는 보리가잘 자라서 가을에 풍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그는 농업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백성들이 풍년이 들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단오에는 수확한 보리로 보리수단을 했다. 보리수단은 새로 수확한 보리를 사당에 올리는데, 보리를 쪄서 만든 밥을 꿀물에 넣는 것을 말한다.46) 실록에 "단오 때 進豐 물을 할 것을 대비전에 물었더니, 농사가 흉년이라고 굳이 사양하시니 하지 말라."47)고 하여 단오에는 궁중에서 잔치를 열었지만, 흉년으로 나라 사정이 좋지 않으면 단오의 행사를 축소시켰다.

김인후는 시에서 단오에 보리가 잘 자라 풍년이 되어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즉 농사가 풍년이 되길 기원하면서 나라의 사정이 좋아지길 바라는 愛國의 마음과 더운 날 농사지을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애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sup>45)</sup> 況今節屬天中, 炎威方熾, 强擧不當爲之擧, 飛揚旌旆, 觸熱馳騁, 實近於玩娛遊嬉, 非所以敬天憂災之意也. (『明宗實錄』卷20, 明宗 11年 4月 乙卯.)

<sup>46)</sup> 舊俗, 五月端五日, 薦新麥于家廟, 麥飯和以蜜水. (崔永年, 『海東竹枝』(『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337면.)

<sup>47)</sup> 端午進豐呈事, 稟于大妃殿, 則以年歉固辭, 其勿爲之. (『中宗實錄』卷27, 中宗 12年 4月 己未.)

다음 시는 '中宮殿端午帖'이다.

天中回令節 천중이라 좋은 철이 돌아오니

椒殿五雲高 초전에 오색구름이 높이 떠도네.

配德涵生育 덕을 짝해 생육을 적셔 주고

同仁及羽毛 인을 함께 하여 금수에도 미치네.

四方承覆壽 사방에서 부도를 떠받드니

一國入皐牢 온 나라가 고뢰에 들어가네.

締給身先儉 검소를 솔선하여 갈포를 만드니

宮衣把剪刀 가위를 쥐고 궁의를 마름하네.48)

김인후는 단오에 중궁전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비를 찬양하고 있다. 首聯에 나오는 '天中'은 '天中佳節'이라는 좋은 명절을 뜻한다. 여기서는 '단오'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令節'은 좋은 시절이나 계절을 의미한다. 단오는 다른 명절보다 좋은 때에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명절로 인식되었다. 다음 구의 '椒殿'49'은 왕비나 후비가 거처하는 궁궐을 말한다. '五雲'은 오색구름으로 五色은 좋은 기운을 의미하는데, 이 좋은 기운이 궁궐과 나라에 덮여있다는 것이다. 즉 중궁전의지붕 위에 다섯 가지 빛깔의 구름이 떠도는 것은 상서로운 일을 말한다. 여기서 김인후는 '중궁전단오첩'을 지어 왕 뿐만 아니라 왕비도 생각하여, 안팎으로 모두 좋은 일만 생기기를 祈願하고 있다.

頷聯의 '配德'은 임금의 德과 짝한다는 말로, 왕비도 임금과 같은 '德'과 '仁'의 마음가짐을 갖춰 백성에게 베풀어 주길 바라고 있다. 즉 왕비도 왕과 같이 德性을 길러 어질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왕과 더불어 왕비의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왕비는 왕을 돕는 보조적인 부분이 더 컸겠으나여기서는 왕비가 왕과 共同의 주체로 상호 보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으

<sup>48)「</sup>中宮殿端午帖」、『河西全集』卷8.

<sup>49) &#</sup>x27;椒壺'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王妃'나 '后妃'를 가리킨다.

로 보았다.

頸聯의 '覆燾'는 覆幬와 같은데 燾는 덮는다는 뜻으로, 인과 덕으로 덮인 세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구의 '皐牢'는 '牢籠'과 같은 말인데 단단히 감싼다는 뜻이다. 드디어 인과 덕으로 온 나라가 감싸여 중궁전의 '和'의 기운이 온백성을 평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尾聯은 단오일의 풍속 중에 하나인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이다. 단오에 입는 옷을 '戌衣'라고 한다. '締給'은 萬布의 가는 것을 締라고 하고, 굵은 것은 絡이라 하며, 文王의 后妃가 손수 締給을 만들어 檢德을 率先한 시를 인용한 것이다.50) 또 '檢素'라는 시어를 통해 왕비가 화려한 옷보다는 소박하게 옷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왕비의 행동이 일반 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으로, 왕비를 본받아 검소하게 집안일을 잘 꾸려나가야 안과 밖의일이 모두 잘 다스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그는 '검소'를 여성이 지녀야 할도리나 직분으로 본 것이다. 다음 구의 '宮衣'는 궁궐 안에 있는 신하들이 입는 옷으로, 단오가 되면 중궁전에서 신하들을 위해 새 옷을 만들었다. 김인후는 왕비가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 恩德을 받고, 잘 살게 되는 富國强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 1.4 仲秋節

仲秋節은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또는 한가위이라 한다. 추석은 중추에 달구경하는 저녁이라는 말이다. 혹은 햇곡식을 수확하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51)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三國史記』「儒

<sup>50)</sup> 爲絺爲綌, 服之無斁. (『詩經』國風「葛覃」)

<sup>51)</sup> 是日, 謂之秋夕, 言中秋翫月之夕也. 或云新穀將收, 如日之夕矣. (趙秀三, 『秋齋集』(『조선 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58면.)

理尼師今」조에 "신라의 유리이사금이 王女 두 사람을 시켜 6部의 여자를 반으로 나누어 거느리고 7월 보름부터 大部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여 乙夜(밤 9시~11시)가 되어 파했다. 이렇게 8월 보름까지 하여 그 간의 길쌈한 공의 많고 적음을 보아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했다. 이때 노래와 춤 등 온갖놀이를 다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가위라고 했다."52)

중추절을 만물이 성숙하는 달이며, 중추가절이라고 칭하므로 민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이날 아무리 궁벽한 시골의 가난한 집이라도 으레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먹었다. 안주나 과일도 분수에 넘치게 가득 차린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있다.<sup>53)</sup> 이렇게 중추절은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보냈던 명절이다.

중추절에는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날 술과 과일을 산소에 올리는 예절은 寒食 때와 같다.54) 이날 농가에서는 익은 곡식과 과일들이 수확할 때를 맞이하고, 1년 중 가장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낸다. 때문에 이때의 우리민족은 어느 명절보다 훨씬 더 중추절을 소중하게 여겼다. 중추절의 시절음식으로는 송편과 토란국, 놀이로는 강강술래와 씨름 등이 있다.

다음 시는 중추절에 쓴 시이다.

八月梨花發 8월이라 배꽃이 만발하여

盈盈一樹春 온 나무가 넘실넘실 봄빛이네.

添將疏雨過 더욱이 성근 비가 지나가니

恰爾對芳辰 마치 꽃다운 때를 만난 듯하네.55)

<sup>52)</sup> 新羅儒理尼斯今使王女二人分率六部女子,自七月望集大部之庭績麻乙夜而罷.至八月望考其功之多少,負者置酒食以謝勝者.於是歌舞百戲皆作謂之嘉排.(柳得恭,『京都雜志』(『丕ゼ대세시기Ⅲ』,기산칼라.2007),90면.)

<sup>53)</sup> 是月也百物成熟,中秋又稱佳節,故民間最重.是日雖窮鄉下戶,例皆釀稻爲酒殺鷄爲饌.肴果之品侈然滿盤爲之.語曰加也勿減也勿,但願長似嘉排日.(金邁淳,『洌陽歲時記』(『丕선대세시기Ⅲ』,기산칼라,2007),146면.)

<sup>54)</sup> 酒果上塚之禮, 與寒食同. (趙雲從, 「歲時記俗」, 『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 03), 120면.)

김인후는 중추절에 나뭇가지에 비친 달빛을 감상하고 있다. 起句는 보름달의 달빛이 나뭇가지에 비친 모습을 배꽃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김인후는 중추절 밤에달을 보면서 주변의 풍경을 살피다가 우연히 나무에 비친 달빛을 보았다. 그 광경이 마치 하얀 배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高尙顏의 「七月見梨花」56)와李安訥의「八月 梨花盛開」57)에서도 봄이 아닌 7월과 8월에 배꽃이 핀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배꽃이 핀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달빛을 배꽃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인후와 같은 선비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달구경을 하면서 달빛을 배꽃으로 비유하여 시를 즐겨 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承句의 '봄빛'은 배꽃이 본래 4월의 따뜻한 봄에 피기 때문에 배꽃을 봄빛이라고했다. 轉句는 밤에 잠깐 내린 비가 그친 모습이다. 結句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여서 달이 더욱 밝게 보였을 것이다. 그 달빛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빗방울과반사되어 배꽃이 더욱 만발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김인후는 시에서 중추절의 풍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의 날씨와 풍경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달을 단조롭게 묘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비친 달빛을 배꽃으로 형상화하여 시의 문학성을 하층 더 높였다.

다음 시는 중추절에 쓴 시이다.

白髮唯公道 백발은 오직 공도라면

春風不世情 봄바람은 세정이 아니네.

紅顔如借酒 술을 빌려서 얼굴이 붉어졌는데

秋月任添明 가을 달이 밝음을 더했네.58)

<sup>55)「</sup>中秋 梨花盛開」、『河西全集』卷5.

<sup>56)</sup> 秋日開花兩三枝, 雖花無子亦堪, 殘粧不及青春, 恰似孀婆再嫁時. (高尚顏, 「七月見梨花」, 『 泰村先生文集』卷1.)

<sup>57)</sup> 辛卯九日松都路,家家梨花樹樹新,如今江郡仲秋月,梨花滿枝開正均,群芳不敢乖常候,一歲偏能占兩春,老子焉知造物意,坐憂人世似壬辰.(李安訥,「八月梨花盛開」,『東岳先生集』卷12.)

김인후는 중추절 밤에 술을 마시며, 세상살이가 예전 같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다. 起句는 시간이 지나면 흰머리가 생기고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세월의 호름은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았다. 다음 구를 보면 여느 때와 같이 가을은 오지만, 세상의 事情이나 사람들의 인심은 봄바람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는 중추절에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백성들이 풍요롭고, 한가롭게 보내지 못했던 것 같다.

承句와 結句는 김인후가 술을 마시며 중추절을 보내고 있다. 이날 사람들은 닭을 잡고 술을 빚어 온 동네가 취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즐겼다.59) 김인후도 중추절에 달을 보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가 술을 마셔서 점점 얼굴이 붉어졌는데, 보름 달이 환하게 떠 있었던 탓인지 붉은 볼이 달빛에 의해 더 잘 보이게 되었다.

김인후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중추절에 술을 마시면서 세상살이가 예전 같지 않음을 생각하고 있다. 즉 그는 나라 사정이 좋지 않은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백성들이 느꼈을 심정을 그들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인후의 마음이 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심정을 이해하고자 하려는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sup>58)「</sup>中秋日有作」,『河西全集』卷5.

<sup>59)</sup> 黄鷄白酒四隣醉, 飽以樂之.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45면.)

## 2. 辟邪 관련 세시풍속시

辟邪는 귀신을 물리치는 풍속으로, 민족의 소망과 생활방식이 잘 드러나 있으며, 보편적인 사유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존재하고, 집단적인 사회심리와 풍속습관과 서로 의존하며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벽사는 세계와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려는 데에서 생성된다. 고대인들은 불행, 질병, 재난, 기아 등의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除災招福의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주술적 대응 양식은 다시 治病, 慰撫, 祈豊,除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세계와 자아 사이의부조리와 모순을 없애고 조화와 화해를 이루려 했다. 또한 인간을 위해 실제적인재해, 위험, 허망한 귀신 등을 제거해 주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각종 의문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60)

벽사는 오래전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온 신앙이다. 즉 벽사는 무병장수, 가정의 평안 등 긍정적인 소원을 표현하는 민간신앙이기도 하다. 민간신앙은 흔히 俗信이나 미신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점괘, 주술, 금기, 무속 같은 현상이나 혹은 신흥종교까지 통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61) 민간신앙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고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었으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에서교류되고 지속되는 전승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는 벽사 풍속과 관련이 있는세시인 입춘, 답청절, 유두, 동지로 나누어 김인후의 벽사 관련 풍속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60)</sup> 진경지, 「한국 歲時記·紀俗詩에 나타난 벽사신앙 연구」(한양대 박사논문, 2006), 1면 참조.

<sup>61)</sup> 앞의 글, 11면 참조.

#### 2.1 立春

立春은 24절기의 첫째로, 양력으로는 2월 4일경에 해당한다. 이날부터 봄이 시작되며,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이기도하다. 음력으로 선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선달과 정월에 거듭 들기도 한다. 입춘 15일간을 5일씩 3候로 갈라서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한다.

입춘에는 다양한 벽사 풍속이 존재한다. 먼저 농가에서는 입춘에 보리뿌리를 캐어 하루 묵혔다가 그 생긴 것을 보고 한 해 점을 치는데,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중간으로, 단지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흉년으로 여겼다.62) 이렇듯 입춘이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준비를 하면서 한 해의 복과 풍년을 빌었다.

또 관북지방 풍속에 이날이 되면 木牛를 만들어 관가에서부터 민가 마을에 이르기까지 두루 길에다 내놓는다. 대개 이것은 土牛를 만들어 내보내는 제도를 본뜬 것으로,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63) 궁중이나 일반 민가 등에서는 立春帖을 대문기둥·대들보·천장 등에 써 붙여서 한 해일이 잘 되기를 기원했다.64) 이것은 민중들이 어둡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과 함께 한 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경기도 산골지방 고을에서는 움파, 산겨자, 승검초 등을 임금에게 진상했다.65)

다음 시는 입춘에 쓴 시이다.

<sup>62)</sup> 農家以立春日, 採宿麥根, 占歲美惡, 三歧以上爲豊, 兩歧爲中熟, 單根下歧, 則爲歉. (金邁淳, 『洌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107면.)

<sup>63)</sup> 關北俗是. 日作木牛, 自官府達于閭里遍出于路. 盖倣出土牛之制而所以示勸農祈年之意也.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191면.)

<sup>64)</sup> 大內貼春帖子, 卿士庶民家及市廛皆貼春聯頌禱. (앞의 책, 190면.)

<sup>65)</sup> 畿峽六邑進葱芽山芥辛甘菜. (柳得恭,『京都雜志』(『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72 면.)

北極敷文德 북극에선 문덕을 펴고

南陲偃武功 남변에선 무공을 종식하네.

妖氛銷闔境 나쁜 기운 온 세상에서 녹고

喜氣滿蒼穹 좋은 기운 하늘에 가득 찼네.66)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고 있다. 起句는 입춘이 되면 '北極'의 차가운 기운이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어 활동하기 좋은 때를 맞는다. 새 봄이 되면 선비들은 학문에 精進하고, 爲政者는 德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것을 말한다.

承句의 '武功'은 전쟁 때 병사의 武烈함에 대한 군사상의 공적을 말한다.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생겨나는 새 봄이 왔으므로, 전쟁을 멈추고 모두들 평화롭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입춘은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서 백성들이 농사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轉句의 '妖氛'은 불길한 기운을 말하는데, 이 나쁜 기운이 봄의 陽의 기운을 통해서 모두 사라져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 실록에 "금년 추위는 예년에 비해 심하여 입춘 뒤에 추위가 더욱 심하니 이것은 실로 재변입니다. 금년엔 아마도 가뭄이 있을 듯합니다."67)고 하여 입춘이 지나서도 추위가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다.

結句의 '蒼穹'은 蒼天으로 맑고 푸른 하늘을 말하는데, 四天의 하나인 봄 하늘을 말한다. 이 하늘이 봄의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김인후는 봄의 좋은 기운으 로 임금께서 학문과 덕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김인후는 봄이 왔음을 기뻐하고, 백성들이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만 들고, 봄의 좋은 기운을 받아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라고 있다.

다음 시는 '大殿春帖'이다.

<sup>66)「</sup>立春日作」、『河西全集』卷5.

<sup>67)</sup> 今年之寒, 比舊爲甚, 立春後, 其寒尤酷, 此實災變也. 今歲將有旱暵之災也. (『中宗實錄錄』 卷89. 中宗 34年 1月 戊子.)

千門涵淑景 천문만호 봄 경치로 적시니

佳氣入春饒 좋은 기운 봄 들어 풍요롭네.

盛治從今見 거룩한 정치 이제부터 나타나고

休明視古超 아름답고 밝음 옛날 비해 뛰어나네.

玄機回渺漠 현묘한 이치 사막에서 돌아오니

大樂聽淸遼 대악이 멀리까지 맑게 들리네.

平秩看東作 고르게 봄 농사일을 살피니

民生得自聊 백성의 삶 저마다 편안하네.68)

'春帖'69)은 입춘에 행해지는 벽사 풍속이다. 옛날 대궐에서는 설날에 내전 기둥과 난간에다 문신들이 지은 연상시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써 붙였는데, 이것을 春帖 子라고 불렀다. 이 풍속은 새봄을 축하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뜻으로 춘첩자를 붙였다.70) 『동국세시기』에 "이날 대궐 안에 춘첩자를 붙인다. 재상집, 양반집, 일반 민가 및 市廛에서도 모두 춘련을 붙이고 한 해 일이 잘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을 春 祝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는 『荊楚歲時記』에 "입춘날에는 宜春이란 두 자를 문에 다 붙인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春聯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상감에서 朱砂 로 재앙을 쫓는 벽사문을 찍어 대궐에 바치면 그것을 문 상방에 붙인다."71)고 하였다.

<sup>68)「</sup>大殿春帖」、『河西全集』卷9.

<sup>69)</sup> 춘첩은 입춘날 대문이나 집안 기둥에 '立春大吉 建陽多慶' 같은 立春帖을 써 붙이는 것으로, 한 해의 무사태평과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아울러 어둡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이기도 하다. 對聯・門對・門帖・春聯 등으로 부른다. 해가 바뀌면 문 앞에 神荼와 鬱壘 두 신을 그린 판자를 세웠던 데에서 유래한 것인데, 陣雲瞻의 『簪雲樓雜話』에 의하면 春聯이라는 명칭은 명나라 태조인 朱元璋이 섣달그믐날 하루 전에 갑자기 첩지를 내려 공경대부와 일반 서민들의 대문 위에 춘련 한 폭씩 붙이라고 한 데에서 왔다고 한다.

<sup>70)</sup> 입춘날 각지에서 대문・기둥・난간・대들보 등에 붙이는 축원의 글로, 立春榜이라고도 하며, 喪中에 있는 가정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많이 쓰는 글귀로는 '門神戶靈 呵禁不祥', '壽如山 富如海', '立春大吉 建陽多慶', '天下太平春 四方無一事' 등의 聯句가 있다.

<sup>71)</sup> 大內貼春帖子. 卿士庶民家及市廛皆貼春聯頌禱. 名日春祝, 按荊楚歲時記立春日貼宜春二字 于門, 今之春聯昉此. 觀象監朱砂搨辟邪文進于大內貼門楣.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 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190~191면.)

입춘 며칠 전에 승정원에서는 堂下官 侍從과 抄啓文臣 중 각 대전과 궁에 붙일 춘첩자를 지을 제술인 명단을 임금에게 올린다. 또 大提學에게는 오언율시와 칠언 율시 및 절구의 운을 각기 한 편씩 출제하게 한다. 그리고는 과거 시험처럼 三下 이상의 점수를 합하여 入格者를 뽑는데, 분배의 표지로 채워 넣은 글머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세어 그 수대로 베껴 제출하게 하였다.72) 또 민가에서도 첩자를 붙이는데, 대문에 붙이는 첩자는 대부분 '문의 신령께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꾸짖 어 물리치네'라는 8글자를 쓴다. 또한 춘첩을 가장 숭상하여 명필가에게 글을 받아 문밖 기둥에 붙이기도 하였다.73) 사대부 집에서는 대부분 새로 글을 짓거나, 혹은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글을 따서 사용하기도 했다.74) 춘첩으로 단오 부적도 만드는 데, 鬱壘와 神道를 그린 그림을 문에다 붙여 두거나 세 마리의 매를 그려서 재앙을 막았다.

김인후는 춘첩에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고, 지금의 왕조를 讚美하고 있다. 首聯의 '千門'은 천문만호로 수많은 백성들이라는 뜻이다. 또 온 나라의 곳곳, 대궐을 비롯한 백성들이 사는 터전을 일컫는다. 봄이 오니 사방 곳곳이 좋은 기운으로 뒤덮여 있다. 이 봄의 좋은 기운으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다스려져 태평성대가 되는 바람을 담고 있다.

頷聯은 지금의 왕조를 예전과 비교하여 더 나음을 讚美하고 있다. 이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축원하는 춘첩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頸聯은 입춘이 되면 궁중에서는 악기를 연주하여 봄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을 알수 있다.

尾聯의 '東作'은 봄철에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平秩東作'75)은 농사를 시

<sup>72)</sup> 前立春數日, 承政院就堂下侍從抄啓各, 殿宮春帖子製述人牌. 招大提學, (大提學未差則招兩 館提學) 以五七律絶各一篇出的. 秋次選入格三下以上計合, 用番數篇首橫勒幾畵分排標識 使, 之依數寫進. (金邁淳, 『洌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107면.)

<sup>73)</sup> 立春, 人家遍揭帖子, 而大門帖, 多有門神戶靈呵禁不祥八字. 且列廛最尚春帖, 遍受名筆, 揭于, 外柱. (趙雲從, 「歲時記俗」, 『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94면.)

<sup>74)</sup> 士夫多用新製, 或揀古人佳語. (洪錫謨,「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191면.)

작할 때 질서가 잡힌다는 것으로, 농사 준비가 순탄히 잘 되어 간다는 의미이다. 입춘은 농사를 시작하기 좋은 때이다. 때문에 백성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농사짓기 알맞은 때를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했을 것 이다. 이날 麥根占을 보고,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 어나오는 씨앗을 살펴 농사의 豊凶을 알아보았다.

김인후는 봄의 좋은 기운을 받아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라는 목민관의 입장에서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또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농사지을 때 처음 시작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2.2 踏靑節

踏靑節은 음력 3월 3일로 삼짇날을 말한다. 한자어로는 上巳‧元巳‧重三 또는 上除라고도 쓴다. 이날은 陽數인 3이 겹쳤다고 하여 길일로 여겼다. 답청절은 삼짇 날을 전후로 하여 청명, 한식 등에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 을 즐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답청절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꽃구경을 한다.

답청절에 나라에서는 과거를 시행하여 선비를 뽑았다. 민가에서는 오색실을 둥글 게 엮어 봉류 모양으로 만들어 문 위에 걸어두고 제비를 맞이했다.76) 답청절에는 다양한 벽사 풍속이 존재한다. 먼저 만물의 소생을 축원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春耕祭와 꿩알 주워 먹기를 하고, 妖邪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물가에서 禊祭를 지내기도 했다. 또 나비 점을 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

<sup>75)</sup> 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 星鳥, 以殷仲春, 厥民, 析, 鳥獸, 孳尾. (『書經』虞書. 「堯典」)

<sup>76)</sup> 國家試士. 人家以五色線團結, 作蓬虆形, 掛戶, 以迎燕. (趙秀三, 「歲時記」, 『秋齋集』(『조선 대세시기 I 』, 민속원, 2003), 47면.) 여기서 '봉류'는 멍덕딸기의 열매를 韓方에서 이르는 말인데, 그 열매 모양을 말한다.

원이 이루어지는 길조로 여기지만, 흰나비를 먼저 보게 되면 부모의 喪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답청절에는 부녀자들이 花煎을 지져먹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아름다 워진다고 해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다.

다음 시는 답청절에 쓴 시이다. '上巳踏靑'은 상사일에 답청하는 놀이를 말한다. 답청은 새로 난 풀의 싹을 밟으면서 그 생기를 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의미가 있다.

有興裁春服 흥이 나서 봄옷을 마련했으니

無妨作晚遊 거리낌 없이 늦도록 노닐 것이네.

周家觴曲水 주나라는 곡수에 잔을 띄웠고

晉客詠淸流 진나라 나그네는 청류에서 시 읊었네.

陌上紅方嫩 언덕 위 꽃은 붉어 한창 고운데

郊邊綠政柔 들녘 풀은 푸르러 나풀거리네.

浴沂當日意 기수에 목욕하던 그날의 뜻은

回想轉悠悠 돌이켜 생각하면 도리어 아득하네.77)

김인후는 답청절의 봄날 경치를 묘사하고, 悠悠自適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首聯은 김인후가 답청절에 새 옷을 장만하여 그 옷을 입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 마음을 내비친다. 봄에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기가나기 때문에 이날은 절로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다. 답청절에는 봄을 맞아 겨울에 입었던 두툼한 옷을 벗고, 가벼운 새 옷을 마련하여 입는다. 김인후도 새 옷을 장만하여 그 옷을 입고 답청절을 보냈다. 답청절은 날씨가 따뜻해서 늦게까지 놀아도 될 정도의 좋은 날이다. 이때는 사방에 꽃이 많이 피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퉁소와 피리를 불었다.

頷聯은 삼짇날의 '流觴曲水'에 대한 풍속이다. 유상곡수는 삼월 삼짇날, 굽이도는 물에 술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던 놀이이다. '淸流'는 맑게 흐르는 물로, 답청절은 따뜻한 봄날이므로 물가에 나와 시 읊기가 좋았을 것이다. 『歲時記俗』에 "청명일과 삼짇날 즈음에 꽃이 만발하니 장안의 놀러 나온 사람들이

<sup>77)「</sup>上巳踏青」,『河西全集』卷9.

서로 짝을 지어 경치 좋은 산과 계곡을 찾아갔다. 어떤 이는 피리와 거문고를 연주하고, 어떤 이는 시를 읊조리며 각자의 회포를 폈다."78) 김인후의 시 「宋上舍求和贈言錄中韻」79)에도 답청절 때에 해마다 향리 사람들이 모여 회포를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답청절에 임금이 승정원·도총부·병조·경영관 등에 술을 하사하고. 답청시를 짓도록 하였다.80)

頸聯은 화창한 봄날에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풀이 자라나는 봄의 생기를 느낄수 있다. '紅'은 '紅花'로 봄에 피는 진달래꽃을 말한다. 진달래꽃이 언덕 위에 많이 피어 있는 모습이다. 답청절이 되면 꽃이 많이 피는데, 이날 꽃구경을 하는 '화류놀이'가 있다. 「歲時記」에 "봄추위가 여전히 남아 있어 3월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꽃봉오리가 맺히고, 10일 뒤에야 만발한다. 도성 안팎으로 여러 곳에 꽃을 심었는데, 필운대 육각정, 동화동, 성북동 등이 빼어남을 다툰다. 많은 남녀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종일토록 즐기니, 그 모습이 마치 벌과 나비가 모인 듯하다. 이를 화류라고 하고, 꽃이 떨어질 때까지 늘 계속 된다."81》고 하였다. 또 부녀자들이 활짝 핀진달래꽃으로 花煎과 花麵을 만들어 먹었다. 이날 사당에도 두견화떡을 올린다.82》 『동국세시기』에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갈라 붙여 둥근 떡을 만든 다음 참기름에 지진 것을 花煎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옛날의 지집이 떡. 또는 기름에

<sup>78)</sup> 清明上巳之間, 花事方闌, 長安遊人, 携伴往溪山勝區. 或秦琴笛, 或賦詩律, 以各暢叙. (趙雲 從, 「歲時記俗」, 『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105면,)

<sup>79)</sup> 좋은 철은 여전히 병란에 속했는데, 꽃가지가 선비 관에 오를 줄을 어찌 알겠는가. 답청 때면 해마다 향리 사람 모인 자리, 오늘은 속절없이 위대만 헐렁하구나. (佳節依然屬秉 蘭, 花枝豈解上儒冠, 踏靑歲歲鄕村會, 今日空憐韋帶寬. (「宋上舍求和贈言錄中韻」,『河西全集』卷7.))

<sup>80)</sup> 賜承政院・都摠府・兵曹・經筵官・臺諫及修理都監酒, 仍命製踏靑詩二十韻. (『成宗實錄』 卷152, 成宗 14年 3月 乙未.)

<sup>81)</sup> 地多春寒,至三月初,始作蓓蕾,旬後乃爛漫.京城內外,種花百十區,而弼雲臺六角亭桃花洞城,北屯爭檀.甲乙士女,紛集壺觴流符終日,如屯蜂族蝶.曰花柳(花柳 會議之名 爲訪花隨柳故也),以至花落,大率常日.(趙秀三,「歲時記」,『秋齋集』(『조선대세시기Ⅰ』, 민속원, 2003),48만.)

<sup>82)</sup> 三月三日, 廟薦杜鵑花餻. (權用正, 『漢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 I 』, 민속원, 2003), 164 면.) 여기서 '두견화'는 진달래를 말한다.

지진 중국 음식의 하나인 寒具 같은 것이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물에 띄우고 꿀을 넣고 잣을 곁들인 것을 畵麵이라고 한다. 혹은 진달래꽃을 녹두가루와 섞어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붉게 물들인 다음 꿀물에 띄운 것을 水麵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시절음식으로 제사에 쓴다."83)고 하였다.

尾聯은 답청절에 물가에서 목욕하는 풍속이 나온다. 여기서 '沂浴'은 曾點의「浴 乎沂 風乎舞雩」에 대한 故事이다. 그 내용은 孔子의 앞에서 여러 제자들이 각기 뜻 을 말할 때. 끝으로 증점이 한 말로.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 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 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84)고 말하여 공자를 감탄하 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답청절의 목욕하는 풍속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김인후는 증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 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뜻과 기 상을 마음속으로 체득하고, 그 속에서 道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시「游東 小文外」85)에 '나의 뜻은 임천에 노상 있는데 이렇게 허덕이니 끝내 어쩌나'라고 하 여 그의 뜻이 '林泉'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요한 가운데 安分知足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機心을 피하고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리려 는 마음이다. 그의 시에는 젊은 날에 꿈꾼 經世濟民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과 번잡스런 세상사의 영욕을 잊고 오로지 자연 속에 묻혀 隱逸의 삶을 살면서 학 문을 연구하고, 때로 자연 속에서 自得之樂을 누리는 시인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 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짐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희미한 기억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sup>83)</sup> 採杜鵑花拌糯米粉作圓餻以香油煮之名曰花煎卽古之熬餅寒具也. 又拌菉豆粉熟而細切澆五 味子水和蜜調海松子名曰畵麵. 或二杜鵑花拌菉豆屑爲之. 又造菉豆麵或染紅色澆蜜水名曰水 麵幷以時食供祀.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15 면.

<sup>84)</sup> 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論語』「先秦」)

<sup>85)</sup> 林泉固吾志, 役役終奈何. (「遊東小文外」, 『河西全集』卷2.)

김인후의 시에는 봄날의 경치에 대한 묘사가 시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관직을 떠나고 전원생활을 하는 문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뜻이 '林泉'에 있었다고 하여 悠悠自適한 삶을 지향하는 정신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다짐했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 2.3 流頭

流頭는 음력 6월 15일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東流水頭沐浴'의 준말이다. 또는 머리를 빗는다는 의미로 梳頭, 머리를 감는다는 의미로 水頭라고도 한다. 이는 동쪽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 동쪽을 향해 흐르는 물로 머리를 감으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쫓아내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생긴 풍속이다. 또 유두를 불가에서 스님들이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을 깎기 때문에 생긴 풍속이라고도 한다.86)

유두는 다른 명절이 거의 대부분 중국의 명절과 합치하여 결국 우리의 고유한 명절이 아니고 중국에서 유래된 것임에 비해, 유두는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명절이다.87) 『동국세시기』에 "이 달 15일을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유두 날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는 고려 명종 때의 학자 김극기가 쓴 문집 중에 "경주의 옛 풍속에 6월 보름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들을 씻어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는데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조선 풍속에서도 이것을 이어받아 俗節로 삼고 있다. "88)고 하였다. 또 李安訥의 『東岳先生集』에 '나라의 풍속으로 유두일인데'89), '시골

<sup>86)</sup> 是日,謂之流頭,僧家沐髮剃頭故也. (趙秀三,「歲時記」,『秋齋集』(『조선대세시기 I』, 민 속원,2003), 54면.)

<sup>87)</sup>故謂之流頭日,中國則無之,我國亦不以此爲俗,以望日故,奠薦先祠.(李植,「答倭人問目」, 『澤堂先生別集』卷1.)

<sup>88)</sup> 十五日東俗稱流頭日. 按金克己集東都遺俗六月望日浴髮於東流水, 祓除不祥因爲禊飲謂之

풍속에 유두일은'90'이라 하였고, 金ቱ의 『溪巖先生文集』에 '우리나라 풍속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두는 옛날부터 있어 왔네'91'라고 하여 유두가 우리나라의 명절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유두의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流頭薦神이 있다. 이는 사당에 수단과 보리 국수, 참외, 능금 같은 종류들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들은 유두국을 차고 다닌 다.92)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 모양의 누룩을 만드는데 이것을 유두국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오색 물감을 들여 세 개를 이어서 색실로 꿰어 차고 다니며, 혹 문 위에 걸어 액을 막기도 했다.93) 지금은 유두가 명절로 행해지지 않고, 6월에는 복날이 있어 그 풍속으로 대신하고 있다.

다음 시는 유두 다음날에 쓴 시이다.

昨日流頭夜 어제 유두일 밤에는

眞嫌月未圓 달이 둥글지 않아 진정 싫었네.

今宵十分地 오늘 밤엔 십분 다 둥글었는데

誰送酒如泉 생처럼 나오는 술을 누가 보냈는가.94)

김인후는 유두 다음날 밤에 달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시로 담았다. 起句는 유두에 보름달이 크고 둥근 모양이어야 하는데 아직 보름달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 유두는 음력 6월 15일이므로 15일은 보름날이다. 그런데 이날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그

流, 頭宴, 國俗因之爲俗節.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38 명)

<sup>89)</sup> 國俗流頭日. (李安訥,「六月十五日 余於四月曾落一齒」,『東岳先生集』卷17.)

<sup>90)</sup> 鄉俗流頭日. (李安訥,「流頭日 贈都事李顯英 重卿」,『東岳先生集』卷6.)

<sup>91)</sup> 東俗傳來久, 流頭自古因. (金坽, 「流頭日」, 『溪巖先生文集』卷2.)

<sup>92)</sup> 流頭, 廟薦水團麥麪甘瓜來禽之屬. 小兒佣流頭麴. (權用正, 『漢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171면.)

<sup>93)</sup> 用小麥麵造麵如珠形名曰流頭麵. 染五色聯三枚以色絲穿而佩之或掛於門楣以禳之. (洪錫 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38면.)

<sup>94)「</sup>流頭後日作」、『河西全集』卷5.

래서 김인후는 유두에 보름달을 보지 못한 속상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轉句는 유두 다음 날에 보름달이 충분히 모습을 다 갖춰 환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다.

結句는 김인후에게 누군가가 술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두에는 술을 마시는 풍속이 있는데, 『京都雜志』에 "이날은 속칭 유두절이라고 한다. 粉團을 만들어 꿀물을 넣어 먹으므로 수단이라고도 한다. 내 생각에는 『高麗史』에 "희종 즉위(1204)년 6월에 시어사(御史臺와 감찰사의 종 5품 벼슬) 두 사람과 관리 최동수가 광진사에 모여 流頭飮을 가졌다."고 하였는데, 나라풍속에 이달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모여 술을 마시는 풍속을 유두음이라고 한다."95)고 하였다. 또 이날 사람들은 모두 닭을 잡고개를 삶아서 시냇가에서 목욕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노래하는데, 이를 滌暘이라 하였다.96)

평소에도 술을 즐겨 마셨던 김인후에게 知人들이 술을 보내 주곤 하였다. 그의시 「장관이 술 두 동이를 보내왔으므로…」, 「윤맹현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기에」, 「태수가 술을 보내왔기로 감사를 표하다」, 「설상사가 술을 가지고 찾아오다」, 「비갠 뒤에 성주가 시와 술을 보내 왔으므로…」, 「훈도가 술을 보내왔으므로 감사를 표하다」, 「숙씨가 깨진 병에 얼음을 보내고 연달아 따뜻한 술을 보내주다」, 「백승형제가 술을 가지고 찾아오다」, 「태수가 술을 보내왔으므로…」, 「고군 우가 술을 가지고 찾아오고…」에서 평소 지인들이 술을 보내준 일을 볼 수 있다.97)

<sup>95)</sup> 俗稱流頭節. 作粉團澆以蜜水食之號水團. 按高麗史熙宗即位六月丙寅有侍御史二人與宦崔東秀會于廣眞寺作流頭飲, 國俗以是月十五日浴髮東流水祓除不祥因會飲號流頭飲. (柳得恭, 『京都雜志』(『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88면.)

<sup>96)</sup> 人皆殺鷄烹狗, 臨溪澡浴, 日盡酣呼, 云滌暘. (趙秀三, 「歲時記」, 『秋齋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54면.) 여기서 '척양'은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시원하게 지내는 일로 避暑라고 한다. 피서 방법으로는 약수 물을 마시고 계곡 물에 발을 담그는 濯足이나, 폭포수 아래서 물을 맞는 물맞이, 고기를 잡으며 노는 천렵 등이 있다.

<sup>97)「</sup>長官給酒數盆與諸上舍飮戲詠懷」,『河西全集』卷3,「尹孟賢持酒來訪」,『河西全集』卷5,「謝太守送酒」,『河西全集』卷5,「偰上舍以酒見訪」,『河西全集』卷5,「霧後城主送詩及酒因用其韻」,『河西全集』卷7,「謝訓導送酒」,『河西全集』卷7,「霧後城主送詩及酒因用其韻集

김인후는 유두에 달이 둥글지 않아서 싫다는 것과 술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시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느 도학자가 갖는 일반의 '감정'과 달리, 인간적인 情操가 강렬하게 표출된 主情的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또 평소에 지인들이 그에게 술을 보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 冬至

冬至는 24절기의 하나로, 大雪과 小寒 사이에 있으며, 음력으로는 11월 중, 양력으로는 12월 22일경이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부터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날을 陽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였다. 이날을 '亞歲'라고 하고, 민간에서는 '작은설'이라 하였다. 궁중에서는 동지를 정조와 함께 큰 節日로 여기고, 會禮宴을 열었다.98) 또 冬至賀禮는 望闕禮와權停禮 등으로 행해졌다.99) 동지에 궁중에서 행해졌던 풍속은 나라의 사정과 왕의

句」,『河西全集』卷7,「叔氏致破瓶冰連致煖酒」,『河西全集』卷7,「伯承兄弟以酒來訪」,『河西全集』卷7,「太守致詩及酒復用來韻集句」,『河西全集』卷7,「高君雩持酒來訪允言求詩」,『河西全集』卷7을 참조.

<sup>98)</sup> 命停冬至會禮宴, 又停進豐呈于大妃殿. 初, 上將設宴, 大妃曰年凶民飢, 豈可安心受宴? 固止之.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11月 庚辰.) 여기서 동지 회례연이 흉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기록이다. 동지의 행사가 나라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회례연은 설날이나 동지에 文武百官이 모여서 임금에게 拜禮한 후에 베풀던 잔치이다.

<sup>99)</sup> 上行冬至望闕禮. 世子隨班. (『中宗實錄』卷96, 中宗 36年 11月 丁未.)은 동지하례를 망궐례로 행했다는 기록이다. 망궐례는 外地에 있는 신하가 그곳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하례로, 여기서는 朝鮮王이 중국 皇帝에게 올리는 것으로 正朝·冬至·聖節·千秋節에왕이 王世子 이하 百官을 거느리고 망궐례를 하는 朝儀를 말한다. 以權停例, 行冬至賀禮. (『中宗實錄』卷10, 中宗 4年 11月 己未.), 行冬至賀禮, 用權停例. (『中宗實錄』卷37, 中宗 14年 11月 壬子.), 冬至賀禮, 以權停例行. (『中宗實錄』卷57, 中宗 21年 11月戊子.) 以權停例, 行冬至賀禮. (『中宗實錄』卷89, 中宗 33年 11月 辛卯.)는 동지하례를 권정례로 행했다는 기록이다. 권정례는 權道에 따라 절차를 다 밟지 않고 약식으로 하는 禮로, 여기서는 朝賀에 있어서 임금이 친히 나오지 않고 位만 설치하고서 禮를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상태에 따라 禮式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동지에 관상감에서는 새 달력을 인쇄하여 이날에 비로소 반포하는데, 靑粧曆・白粧曆・月曆・中曆 등이 있다.100) 동지의 달력은 아전이 관원에게 바친다고 하여 이것을 '夏扇冬曆'이라고 하며, 이러한 선물 관행이 고향의 친지와 묘지기, 마을, 그리고 농장의 농민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101) 대대로 벼슬을 해온 仕宦家 집안에서는 각기 句管銓吏 한 사람씩 있어 벼슬에 나가는 집안사람이 있으면 告身, 즉 사령장교지를 써 주고, 군현의 수령으로 나가는 경우는 전리에게 특별히 堂叅錢을 지급했다.102) 이날은 팥죽을 쑤어서 사당에 바치거나, 먹는 풍속이 있다. 이것은 팥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 벽사의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 疫鬼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잡귀를 물리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다음 시는 동지에 쓴 시이다.

天地正栗烈 천지가 너무 추우니

窮陰方閉閥 궁한 음기 막 멎을 때이네.

葭灰發陽管 갈대 재 양관에서 피어오르니

一夜動生意 하룻밤에 생기가 도네.

洋洋浩化機 조화의 기운이 가득 차니

妙處難擬議 묘한 곳은 말로서 헤아리기 어렵네.

神功鼓萬象 신공이 만상을 두드리니

端緖如可視 단서가 보일 것만 같네.

觀來乍有得 살펴보면 잠깐 깨달음이 있지만

靜想迷道器 자세하게 보면 도기가 희미하네.

<sup>100)</sup> 觀象監印新曆, 是日始乃頒布, 有靑粧白粧曆月曆中曆等曆, 名品. (趙雲從, 「勉菴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124면.)

<sup>101)</sup> 冬至之曆吏獻于官是謂夏扇冬曆波及鄉曲親知墓村農庄.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 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56면.)

<sup>102)</sup> 仕宦家各有句管銓吏一人掌寫告身, 出室郡縣給堂衆錢. (柳得恭, 『京都雜志』(『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91면.) 당참이란 새로 수령에 제수되면 도당, 즉 의정부를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말하며 당참전의 전이란 전리가 이때 쓰게 될 비용인 것이다. 매년 동지가 되면 전리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청장력 한 권을 주인집에 바친다.

陰陽互升降 음과 양이 서로 오르내리니

至理何嘗離 지극한 이치 어찌 분리한 적이 있었겠는가?

妙合自無間 묘합이란 스스로 틈도 없고

眞精無假僞 진정이란 거짓도 없네.

循環亘萬古 돌고 돌아 만고에 이어지니

專一而直遂 한결같이 나가 곧장 이루어지네.

流行旣不息 유행하여 쉬지 않으니

定分有常位 일정한 분수는 떳떳한 위치에 있네.

生生好竝育 넣고 낳아 다 기르길 좋아하니

隨處均付畀 곳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네.

大哉天地心 대단하다! 천지의 마음이여

爲物還不二 사물과 떨어져 있지 않네.

聖人首庶物 성인은 모든 사물의 으뜸이라면

父天母其地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이네.

念念戒間斷 생각마다 끓임이 없기를 경계하니

幾微在敬肆 기미는 공경하고 방자한 것에 달려 있네.

緝熙立大本 광명을 이어받아 대본을 세우고

從容應萬事 조용하게 만사에 응해 나가면.

善端自綿綿 선의 단서가 저절로 면면히 이어지고

無爲國自治 행함이 없어도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지네.

至誠靡不通 지극한 정성이면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爰及霜露墜 서리 이슬 내린 곳까지 모두 미치네.103)

김인후는 임금의 덕으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 1연의 '栗烈'은 大氣가 차다는 뜻으로, 동지는 겨울의 끝자락이여서 추위가 매서울 때이다. 동시에 동지가 지나면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바꿔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窮陰'은 窮冬으로 겨울의 마지막인 음력 선달을 이른다. 바로 동지는 음력으로 한 해의 마

<sup>103)「</sup>冬至」,『河西全集』卷3.

지막달이라는 것이다. 한 해가 지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해는 음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양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이다. 즉 동지는 일 년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길어지기 시작하여 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2연의 '葭灰'는 갈대 줄기 속에 들어 있는 갈청을 태운 재를 말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이 재를 대롱 속에 넣어 절기의 이르고 늦음을 점쳤다. 즉 갈대의 재를 律管에 넣어두어 기후를 알아보았다. '陽管'은 볕을 주관하는 곳으로 양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함을 말한다. 동지에 관상감에서는 기후를 관측했다.104) 동지는 양의 기운이 생겨나는 때이므로 이날의 날씨를 잘 살펴 다음을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후가 따뜻하면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다.105)

3연은 동지가 양과 음이 서로 조화를 이뤄 공존하는 때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동지의 기운으로 겨울 내내 죽은 듯이 있던 萬物에 생기가 돈다. 즉 동지가 되면 양의 기운이 생겨나면서 온갖 것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4연에 '단서가 보일 것도 같다'는 것은 땅속에 있던 새싹이 자라서 땅 위에 났다는 것을 말한다.

5연에서 김인후는 음과 양이 순환하는 것을 당연한 이치이며, 서로 나뉘어 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또 '道'와 '氣'도 겉으로는 나누어진 것 같으나 깊숙이 들어가보면 음과 양의 調和처럼 '도'와 '기'도 서로 한가지라고 보았다.

<sup>104)</sup> 冬至候氣之法, 問諸觀象監官員, 則未能詳知. (『中宗實錄』 卷16, 中宗 7年 9月 己丑.), 修冬至(侯)氣重室. (『中宗實錄』 卷16, 中宗 7年 9月 甲午.)은 궁중에서 동지의 기후를 관찰하였다는 내용이다.

<sup>105)</sup> 冬暖如春,時令不順. 冬至日侯,融暖太甚 昨日之雨,如夏日之雨,陰陽不調. 臣等不職,致此咎徵,請辭職. 傳曰 咎在予躬,何嫌於政丞? 又啓曰 天道昭昭,見人事示變,生民愁嘆,政令不一,則天譴災異. 頃緣廢朝,百姓失業,流離四方. 反正後,民雖少蘇,猶未安集. 殿下屢下恤民之教,刑獄冤抑,尚未盡釋,下諭中外,以伸抱冤何如?(『中宗實錄』卷4,中宗 2年11月 己酉.),回啓曰 近來於京畿之內,節候亦甚不順,距冬至十日,而暖氣如春,全羅雖南方,然果木花開而結果,此實非常之變,臣等亦甚惶懼.(『中宗實錄』卷21,中宗 9年11月丁丑.)의 실록에 동지의 기후가 때에 맞지 않게 따뜻하면 나쁜 징조로 여겼다는 기록이보인다.

6연에서 11연은 동지가 陽의 기운이 다시 생기는 날로, 양의 기운이 소생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자연의 運氣를 묘사하고 있다. 동지는 음력 11월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양의 기운이 생동하는 달이다. 이는 음양의 기운이 1년 단위로 생장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11월 중에도 동지의 때가 처음 시작되는 甲子時가 바로 양의 기운이 소생하는 순간으로 인식하였다.106) 또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음과 양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12연과 14연은 동지가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지만물의 근원인 理를 따라 만사가 이루어지면 善의 실마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나랏일도 저절로 잘 다스려져 平天下가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마지막 연은 군주가 올바른 정치를 행하여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天道에 어긋나지 않 게 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 화평을 누리게 되어, 서리와 이슬이 온 세상에 내리 듯 임금의 은택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霜露墜'는 어느 지방이고 다 미친다는 의미인데, 나라가 잘 다스려져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김인후는 동지의 음과 양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고, 조화 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시에 잘 나타내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임금의 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처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 시는 동지에 趙希文에게 쓴 시이다.

橫渠豆粥土床中 횡거의 팥죽 토방 가운데서

溫飽閒餘萬事空 배부른 나머지 만사가 휑하네.

須識一陽初動處 응당 알겠네, 일양이 갓 생동하면

閉關齋潔益加功 관문 닫고 재계하여 공력을 더욱 더함을.107)

<sup>106)</sup> 이창희, 「옥소 권섭의 기속시 연구」(『우리어문연구』第30輯, 우리어문학회, 2008), 195명

<sup>107) 「</sup>至日示景范」, 『河西全集』卷6. 여기서 '至日'은 동지를 말하며, '景范'은 趙希文(1527~1578)으로 본관은 咸安이고, 자는 景范, 호는 月溪이다. 金麟厚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前詩二首戲之云 요전의 두 수 시는 희롱삼아 한 말이니 向後方加勸勉勤 이후로는 더욱 더 부지런히 힘을 쓰게. 莫道醉翁無意謂 취옹이 의미 없이 일렀다 생각마소 及天猶未喪斯文 하느님이 사문을 없애지는 않았거든.108)

김인후는 조회문에게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고,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起句는 동지에 팥죽을 먹는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橫渠의 팥죽'은 횡거의「至日豆粥詩」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동지에는 節食으로 '동지팥죽' 또는 '冬至豆粥'이라 하여 팥죽을 쑤어 먹는 오랜 풍속이 있다. 팥죽은 동그란 덩어리를 넣은데, 이를 새알심이라 한다. 된 죽을 갈심, 묽은 죽을 온심이라고 한다.109) 이 것에 꿀을 타서 시절음식으로 먹으며 제사에도 쓰며, 팥죽 국물을 문짝에 뿌려 액을 막기도 한다. 이는 厲鬼를 몰아내는 벽사행위이다. 『동국세시기』에 "『형초세시기』에 "공공씨에게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물리치는 것이다."고 하였고, 중국 송나라 사람 유자회의 동짓날에 관한 시에 "팥죽으로 귀신을 눌러 형 나라 풍속을 생각한다."고 하였다."110) 이러한 점은 陰陽思想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팥의 붉은 색은 '양'을 상징하는데 '음'의 속성을 가지는 역귀나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팥죽이 굳은 상태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벽사 풍속도 있다.111)

勝句는 김인후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 되었는데 그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安逸하면 된다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다음 구에서 김인후는 조희문에게 진정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

<sup>108)「(</sup>至日示景范) 其二」、『河西全集』卷6.

<sup>109)</sup> 冬至, 食荳糜粥, 雜以丸麵, 曰鳥卵心. 糜謂磨心, 粥曰全心. (趙秀三, 「歲時記」, 『秋齋集』(『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63면.)

<sup>110)</sup> 按荊楚歲時記共工氏有不才子以至死爲疫鬼畏赤小豆故冬至日作粥以禳之,劉子翬至日詩云,豆糜厭勝憐荊俗.(洪錫謨,『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기산칼라,2007),255면.)

<sup>111)</sup> 김성식 외, 『남도 민속의 세계』(민속원, 2005), 195면,

한 것은 양의 기운이 생겨나면 자연의 생물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인 우리들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지낼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至日示景范) 其二」는 김인후가 이전에 조희문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학문에 精進하여 부지런히 힘쓰라는 것이다. 또 어느때라도 학문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이는 道에 도달되는 길은 여러 가지이니 공부에 미리 준비고, 힘써서 바른 도에 이르라는 내용이다. 또 공부를 하면서 중도에 그치지 말라고 하여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다. 김인후는 제자들에게 小學으로부터 시작해서 大學을 熟讀해야 한다는 공부 방법을 실현했다. 또그의 시「贈人」112)에서 '끊임없는 근면으로 지닌 힘 다 바치고',「勸學」113)에서 '나태심을 방지하여 쉴 새 없이 부지런히'라고 하여 게으름을 경계하고,「吟示景范 仲明」114)에서 '공부를 하면서 건너 뛰어 되겠는가'라고 하여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앞서가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시에서 학문에 대한 熱意를 보이며, 自强不息하라는 학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김인후는 동지를 맞아 양의 기운이 생겨나면 자연의 생물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인 우리들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지낼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精進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바라는 학문에 대한 그의 열의를 느낄 수 있다. 즉 공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할 때는 열심 히 해서 바른 도에 이르라는 것이다. 또 공부를 하면서도 중도에 그치지 말라고 하 여,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다.

<sup>112)</sup> 工夫不在能言上,妙用須知不二中,勉勉循循而極力,兩忘功利與虛空.(「(贈人) 其二」,『河西全集』卷6.)

<sup>113)</sup> 不分生困竟歸知, 聖道雖遐學可追, 更合勿忘而勿助, 且防怠忽亘孜孜. (「勸學」, 『河西全集』卷7.)

<sup>114)</sup> 諸經儘美遽難看,爲有工夫躐等難,未定根基先作室,巍然只好一時觀.(「(吟示景范 仲明) 其七」,『河西全集』卷6.)

# IV. 其他 風俗詩

# 1. 釋奠日

釋奠115)日은 釋奠祭를 하는 날로 석전·釋奠大祭·釋菜라고도 한다. 奠은 제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석전제는 文廟에서 孔子를 제사 드리는 큰 제향으로서 春·秋로 나누어 음력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전통 사회에서 饌과 술을 마련하여 山川・廟社에 올리던 제사, 또는 학교에서 先聖·先師를 추모하기 위하여 올리던 의식이다. 文王世子에 "학교에서는 봄에 詩·書·禮·樂을 가르치는 교관이 先師에게 석전을 올렸고 가을과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무릇 처음 學校를 세우면 반드시 선성과 선사에게 석전을 지낸다."116)고 하였다. 先師란 앞서 간前代의 훌륭했던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다. 석전은 시대를 내려오면서 점점 학교의의식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공자 이전부터 석전의 전통은 있었고 공자 사후에도 학교 사당에 공자보다 주공을 더 높였던 시기도 있었다. 周代에는 舜·禹·湯·文王을 선성으로 모시는 것이고대 중국의 관례였다. 또한 文廟와 대립된 武廟에서의 제사 역시 석전이란 용어를 사용했었다. 그러다가 漢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자를 점차 선성・선사의 자리로 올려 문묘의 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우러러 모시는 관례가 정착되었다.117)

<sup>115)</sup> 釋奠이란 글자는 제물이나 폐백을 신에게 받치기 위해 진열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석전이란 학문에 공이 있는 성현 또는 선사에 대한 제사를 의미하지만, 고대에는 반드시 학교에서의 제사를 지칭했던 것은 아니다. 산천에 대한 제사도 석전이라불리어졌으나 점차 학교에서의 제사는 侍童이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제사는 시동이 없이다만 음식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석전'이라 불린 것이다. (이기동,「釋奠祭禮의 사회철학적 의미」(『한국사상과 문화』第40輯,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213면.)

<sup>116)</sup> 凡學, 春夏釋奠于其先師, 秋冬亦如之, 凡始入學者, 必釋奠于先聖先師. (『禮記』「文王世子」)

조선시대에 지방에는 고을마다 모두 330여의 향교가 있어 중앙의 성균관과 마찬 가지로 매년 두 차례씩 석전을 올렸다. 지금도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의 상정일에 석전을 奉行하고 있다.

다음 시는 석전일에 쓴 시이다.

古人尊實德 옛 사람은 실덕을 존숭했는데

今世重浮名 오늘날 세상 헛된 명성 중하네.

拜受膰兼酒 절 올리고 번육과 술을 받으니

春秋荷聖靈 봄가을로 성령의 은혜 받드네.118)

김인후는 석전제를 지내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석전일은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날로, 제사를 지내면서 공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기르고, 그에 대해 홈모하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다. 제사를 통해서 공자의 훌륭한 정치방법을 본받아 현재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로하여금 공자와 같은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起句와 承句의 내용을 보면 김인후는 옛 사람들은 참되고 진실한 德性을 존중했지만 지금은 참된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명예만을 推仰한다고 하였다. 또 공자의 사상을 존중해서 실천하려는 것보다 공자라는 이름만을 내세운 형식적인 석전제로 점점 퇴색되어졌다는 것이다.

轉句와 結句에는 석전제에 제를 마치고 고기와 술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마도 김인후는 석전일의 제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 같다. 여기서 절을 드리고 술과 음식을 받았다는 것은 석전제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飮福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盧守愼의『蘇齋先生文集』에「석전을 마친 후 교생들과 음복하면서 취하여 2수를 읊다.」119)와 趙纘韓의 『玄洲集』에「향교 석전 음복일에 모재가 학생들에게 『소

<sup>117)</sup> 이욱. 「석전의 가치와 역사」(『문묘일원과 석전대제』, 종로구 간행, 2003), 39면 참조.

<sup>118)「</sup>釋奠日作」,『河西全集』卷5.

<sup>119)</sup> 盧守愼,「釋奠後校生分餕 醉吟二首 二月」,『蘇齋先生文集』卷2.

학교을 권하는 시에 차운하여 향교 유생들에게 보이다.」120)에서도 석전제를 마치고 음복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燔肉'은 종묘의 제사에 쓰는 쪄서 익힌 고기를 말한다. 『孟子』에 "공자께서 노나라의 司寇로 있을 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게다가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 고기가 이르지 않자, 공자께서는 면류관을 벗지도 않고 떠나셨다."121)고 하여 제사에 쓰이는 고기를 번육이라고 하였다. 다음 구의 '春秋'는 석전제가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석전제가 행해지는 계절을 의미한다.

다음 시도 석전일에 관한 것이다.

文宣大享日 문선왕 제사하는 대향의 날에는

裸獻自天王 천왕이 몸소 나가서 잔을 올리네.

道統義軒遠 도통은 복희 헌원 아스라하고

波流世代長 여파의 흐름 또한 세대가 기네.

儒冠趨濟濟 많은 유관들이 달려 나가니

神在格洋洋 양양히 신이 계셔 강림하도다.

改服涓庭宇 옷 고쳐 입고 뜰을 깨끗이 하며

傾心到夕陽 석양까지 정성을 다 기우려라.122)

김인후는 석전일에 整肅한 자세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首聯의 '文宣'은 문선왕으로 孔子(B.C.551~B.C.479)를 말한다. 공자는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여 德治政治를 강조한 사람이다. 다음 구는 天子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였는데, 석전제가 중요한 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실록에 "오는 정해 년에 올릴 종묘·문소전·연은전

<sup>120)</sup> 趙纘韓,「釋奠飮福日 次慕齋勸諸生小學韻 仍示校儒」,『玄洲集』卷4.

<sup>121)</sup> 曰 孔子爲魯司寇,不用,從而祭,燔肉不至,不稅冕而行,不知者,以爲爲肉也,其知者,以爲爲無禮也,乃孔子則,欲以微罪行,不欲爲苟去,君子之所爲,衆人,固不識也.(『孟子』「告子下」)

<sup>122)「</sup>釋奠日作」、『河西全集』卷8.

의 춘향대제는 모두 섭행하게 하라. 그러나 문묘의 석전제는 내가 몸소 지내도록 하겠다."<sup>123)</sup>고 하여 석전제에 왕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頷聯은 道學이 오래전부터 생겨났고, 그 도학이 지금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인후는 "대개 복회, 신농 이하로부터 三代 이상까지는 성인과 성인이 서로 주고받아 마음과 덕이 동일하므로, 道는 위에서 밝아지고 敎化는 아래에서 행해져서 사람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고 學치고 바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124)고 하여 도학의 배움과 가르침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頸聯의 '儒冠'은 유생들이 쓰는 관으로, 유관이 많고 성하다는 것은 유생들이 석전제에 많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생들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석전제에 참여했으며, 지금도 도학을 잇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석전제는 성균관에서 행해졌는데, 실록에 "평상시 각 관청에 병이 전염되면 관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한다. 지금 관중에 병이 전염되었다고 하기에 학궁에 행행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앞으로 석전제를 지내야 하는데 병이 전염된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결하고 음복하기도 편치 않다. 물려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예조에 의논하여 아뢰도록하라."125)고 하여 성균관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사정에 따라 장소를 옮겨야 했다.

尾聯은 석전제를 임할 때는 몸과 마음을 精潔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자신의 옷매무새를 다시 다듬고, 자신의 거처를 안팎까지 청소했다. 실록에 "석전제에 그릇을 씻는 등의 일을 모두 유생들이 하게 하는 것은 그 제사를 깨끗하게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생들이 관을 비워두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조관

<sup>123)</sup> 來丁亥年, 宗廟·文昭·延恩殿春享大祭, 皆令攝行, 而文廟釋奠祭, 予當親行. (『中宗實錄』卷58, 中宗 21年 12月 己巳.)

<sup>124)</sup> 蓋自羲農而下三代而上,聖聖授受同一心法,道明於上而化,行於下,人無不學學無不正. (「策」,『河西全集』卷12.)

<sup>125)</sup> 常時各司,病氣傳染,則官員不能坐起,而今者館中,病氣傳染云,欲爲幸學而停之.近當行釋奠祭,染病之處,行祭不潔,而飮福亦未安.退行無乃可乎?速令該曹議啓.(『中宗實錄』卷94,中宗 36年 2月 甲子.)

을 집사로 차출했는데 그들이 직접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가 모두 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126)고 하여 그릇 닦는 일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석전제에 정성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석전제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경건하게 지냈다. 김인후는 祭를 지낼 때에 옷을 단정히 하고, 자신의 거처를 안팎까지 청소하며, 整肅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제를 지냈다.

<sup>126)</sup> 釋奠祭,凡滌器等事,皆以儒生爲之,其祭潔蠲.今儒生空館,故以朝官差執事,不能親執其事,而令下人任之,多有不潔之事.聞者皆爲未安.(『明宗實錄』卷11,明宗 6年 2月 辛巳.)

### 2. 臘日

臘日은 冬至 후 셋째 未日로 臘平 또는 嘉平節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 지내던 날이다. 납일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풍속이지만, 그 날짜를 정하는 데는 나라마다 달라서 漢·宋에서는 戌日, 魏에서는 辰日, 晉에서는 丑日로 하였으며, 그 후 대개 술일로 하다가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미일로 정하였다. 그 이유를 『芝峰類說』에서 蔡邕의 설을 인용하여 "靑帝는 미일로 납일을 정하고, 赤帝는 술일로, 白帝는 축일로, 黑帝는 진일로 각각 납일을 정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납일을 미일로 한 것은 대개 동방이 木에 속하기 때문이다."127)고 하였다.

납일 때가 되면 대개 음력으로 연말 무렵이 된다. 납일에 나라에서는 臘享이라하여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사직에 供物로 바치고 大祭를 지냈고, 민간에서도 여러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납일을 四孟朔과 더불어 五大祭享이라 불렀다. 납향에 쓰는 납일고기는 경기 산간의 군민이 산돼지와 산토끼 등을 잡아 바쳤다. 때문에 군민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정조 때에는 그 관습을 없애 서울 장안의 포수들로 하여금 龍門山, 祝靈山 등 여러 산에서 잡아오도록 하였다. 128) 납은 獵의 뜻으로 사냥한다는 의미이며, 천지만물의 덕에 감사하기 위하여 산짐승을 사냥하여 祭物로 드린다는 데에서 온 말이다.

납일에 궁중의 內醫院에서는 각종 환약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린다. 이것을 臘藥이라 하여 임금은 측근과 지밀나인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129) 또 耆老所에서도 여러 가지 납약을 지어서 기로의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각 관서에서도 환

<sup>127)</sup> 按芝峯類說引蔡邕之說靑帝以未臘赤帝以戌臘白帝以丑臘黑帝以辰臘,我國臘用未,皆以東方屬木云.(洪錫謨,『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60 円.)

<sup>128)</sup> 臘肉用猪用兔, 畿內山郡舊貢臘猪發民搜捕, 健陵特罷之以京砲手獵龍門祝靈諸山以進. ( 앞의 책, 260 년.)

<sup>129)</sup> 內醫院造丸劑各種以進, 名曰臘藥, 頒賜近密. (앞의 책, 260면.)

약을 지어 나누어주고 京鄉의 친지에게 서로 선물하기도 하였다.[30]

12월에 지방의 牧使나 인척·친척·동료들이 서로 먹을 것을 보내며 안부를 물었는데, 이를 歲饌이라고 한다. 납일에는 참새구이를 먹는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는 부형들이나 어른들께 절을 하는데, 이를 '묵은세배'라고 한다. 이날 대궐에서는 크게 驅儺禮[131)을 행하며 폭죽을 터뜨린다. 민간에서는 밤새도록 등불을 밝혀 놓는데, 사당이나 침실·문·부엌·마구간·변소 같은 장소에도 모두 등불을 밝혀 둔다. 어린아이들에게 접주기를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는데 아이들 중에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132) 또 호남 지방에서는 납일에 엿을 고는 풍속이 있다.

다음 시는 납일 전에 눈이 세 번 내린 것에 대한 내용이다.

先臘三看雪白翩 흩날리는 흰 눈을 납일 전에 세 번 보니

海邦多慶占豐年 바다 나라에 복이 많아 풍년을 점치겠네.

蝗蟲知己深投地 황충은 벌써 깊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禾稼終當盛滿田 벼농사도 올해엔 잘 되어 논밭에 가득하겠지.

隨處山原銀界遍 곳곳마다 산과 벌판엔 은세계 펼쳐지고

盈林樹木玉枝連 숲에 가득한 나무들은 옥가지 이어졌네.

老農開戶爭相賀 늙은 농부들은 문 열고 서로 다퉈 축하하며

擬獻歌詞黼座前 가사 지어 임금님께 올리려고 하네.133)

<sup>130)</sup> 又自者老所造臘劑分諸耆臣,各司亦多造出分供又相送遺.(洪錫謨,『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7), 259면.)

<sup>131)</sup> 궁중에서 악귀를 쫓기 위하여 악귀로 분장한 사람을 方相氏가 쫓는 의례로, 구나례는 觀象監의 주관으로 매년 음력 섣달그믐 전날 밤에 대궐의 뜰에 들어가서 행한다.

<sup>132)</sup> 十二月, 外邑牧伯及姻親僚友, 相與饋問曰歲饌. 臘日食黃雀灸除夕拜父兄長者, 曰拜舊歲. 是日禁中大儺施放炮火, 民間竟夜長燈, 廟寢門竈廐厠. 皆燈之恐小兒, 云除夜不宜睡, 睡則眉白兒或達曙不眠. (權用正, 『漢陽歲時記』(『조선대세시기 I』, 민속원, 2003), 179~180 명)

<sup>133)「</sup>臘前三白(長官課試)」、『河西全集』卷10.

김인후는 납일 전에 눈이 세 번 내린 것을 기뻐하며,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首聯은 납일 전에 눈이 세 번 내린 것을 보았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납일 전에 눈이 세 번 내리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다. 실록에 "겨울에는 눈이 쌓여야 땅이 기름지고 보리가 잘 자라서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옛말에 납일 전에 세 번 눈이 오면 풍년들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날씨가 몹시 춥고 섣달이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눈이 내리지 않으니, 중국의에에 따라 기설할 일을 該曹에 명하시어 고사를 참고하여 상의해 하게 하소서."134)라고 하여 눈이 내리지 않으면 좋지 않는 징조로 여겨 기설제를 지냈다.

頷聯은 납일 전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풍년이 될 거라는 희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 납일 전에 큰 눈이 세 번 오면 보리뿌리에 벌레가 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곡식들이 잘 자란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인후는 풍년이 들어 논밭에 벼가 가득 쌓여 있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 또 납일에 내린 눈을 녹인 물을 '臘雪水'라고 하는데 약용으로 썼다. 『동국세시기』에 "납일에 내린 눈을 녹인 물은 약으로 쓰이며, 그 물에 물건을 적셔 두면 좀이 슬지 않는다."135)고 하였다. 때문에 납설수는 환약을 만들고, 장을 담글 때 사용하였고, 이물로 눈을 씻으면 안질에 걸리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다.

頸聯은 납일 전에 내린 눈이 쌓여 주변의 온 산과 들이 하얀 눈으로 덮여진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인후는 사방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은세계라는 '銀界'와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을 옥가지라는 '玉枝'라는 감각적인비유를 사용하여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尾聯은 납일 전에 눈이 내려서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이다. '老農'은 농사짓는 농

<sup>134)</sup> 冬月有積雪, 然後土脈滋潤, 菽麥盛長, 而可冀其有年矣. 故臘前三白, 謂之豐年之兆也. 近者日氣苦寒, 臘月過半, 而迄不雨雪. 請依中朝例, 祈雪之事, 令該曹, 考古事商確處之. (『明宗實錄』卷21, 明宗 11年 2月 壬寅.)

<sup>135)</sup> 臘雪取水爲藥, 用淸物則不生蛀.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 7), 259면.)

민을 말한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民生'을 쓰지 않고 '老農'이라고 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김인후가 직접 늙은 농부가 문을 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둘째, 납일 전에 내리는 눈은 풍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農'을 사용하여 농사와 관련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136) 즉 '老農'이라고 한다면 '臘前三白'이 갖는 의미가 더 부각 될 것이며, 납일이 농사와 관련된 풍속이라는 점도 알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구는 농부가 풍년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임금께 가사를 지어올리려고 한다. 이는 농부의 홍겨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인후는 납일에 풍년을 빌고, 벼농사가 잘 되는 상상을 하면서 농부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과 喜怒哀樂을 같이하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며, 애민의 감정이 남달리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백성들에게 농사가 잘되고 안되고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농사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sup>136) 「</sup>臘前三白(長官課試)」, 『河西全集』 卷10의 내용을 보면 '田翁共喜秋多穫'에서도 백성이 라는 '民生'을 쓰지 않고 '田翁'이라 하였다.

# Ⅳ. 김인후 풍속시의 문학사적 위상

지금까지 김인후의 풍속시를 통해 그의 사유관을 살펴보았다. 그의 풍속시는 세 시마다 행해졌던 다양한 풍속과 작자의 감정 이입을 통한 정신세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런 김인후의 풍속시에 내재되어 있는 전고의 사용, 표현의 수용과 형상 화 기법, 주제 인식을 살펴보아 그의 풍속시의 문학사적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김인후의 풍속시는 道의 文學化를 이루었다. 즉 그는 堯·舜, 文王, 孔子에 대한 典故를 사용하여 道學과 文學을 결합시켰다.

16세기의 호남시단은 문학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에 비해 김인후는 도학과 문학의 결합으로 시를 통해 도를 구현하려는 호남시단과의 다른 특징을 보인다. 즉철학적 사유 체계인 도학을 문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도학 위주 혹은 문학 위주로 치우치지 않고 도학에 문학을 결합하여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도학의 문학화이며, 곧 경전의 문학화를 말한다. 『詩經』, 『小學』, 『大學』, 『論語』, 『孟子』 등의 내용들 詩化하는 것이다. 그의 풍속시에서도 도학과 문학의 결합의 특징이 보이며, 세시 풍속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풍속마다 지나는 실질적인 정신을 시에 담아냈다. 이런 도학자로서 도의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향할 대상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김인후는 중국 堯舜시대를 이상국가의 모범으로 삼아 이를 지향하고, 학문의 근원을 선대 유학의 경전에서 찾아, 孔孟, 程朱로 이어지는 德治主義를 표방하였다.

정월의 시「正月朔日書」에서 김인후는 '순임금의 선을 행하고', '요임금의 말씀을 외우네', '문왕의 밝은 덕이 위에 있네'라고 하여 요·순과 문왕의 덕을 본받아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즉 성인의 도가 바르게 실현되고, 바른 학문으로서 다스려졌던 때를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후는 正道를 요·순과 禹湯文武王으로부터 말미암아 周公으로부터 공자에게 전해 내려온 도임

을 밝혀서 이를 참된 도라고 보았다. 이것은 요·순의 덕치주의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며, 군자의 도를 실현한 문왕의 정치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조정에서 정치를 담당하는 治者의 仁德에 중국의 역사와 인물들을 생각하면서道義가 실현되는 나라, 도의를 따라 出處하는 인물을 추앙하고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현재의 상황에 재조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김인후는 온 백성이 요·순, 문왕 때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을 治世의 완성으로 보았다.

답청절의 시 「上巳踏靑」에는 '기수에 목욕하던 그날의 뜻은'이라고 하여 『論語』 의 '浴沂'에 대한 전고를 사용하였다. 이는 공자가 욕기의 취미를 즐겼던 것처럼 자 연의 뜻과 기상을 마음속으로 깊이 체득하고, 性情을 함양하고 德性을 도야하는 대 상으로 자연을 인식하였다. 즉 김인후는 자연 속에서 도를 찾는다는 것으로, 도라 고 하는 것이 일상의 생활규범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자기 수양이라고 보고, 도 란 사람의 삶에 지극히 가까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인후는 공자가 없었으면 여러 성인의 도가 전하지 못하고, 공자 이후로 여러 현인들이 전통을 이어 오다가 그 어두워짐이 미쳐서 朱子의 도가 밝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아 공자, 주자의 공 적은 여러 성인이 이들보다 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공자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확고히 하였다. 그의 시「示小子」에서 '공자님의『論語』를 애들에게 알려주 니. 聖門에 들어가려면 이 책이 경계 일세'라고 하여 김인후는 『논어』가 聖門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보고, 공자에게서 도를 찾으려 하였다. 김인후는 正祖 때에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문묘는 공자를 祭享하는 사당으로, 文廟 배향의 제도는 중국의 성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현도 같이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 묘에 배향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도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이들이 중심이 된다. 때문에 김인후는 공자의 도통을 잇고, 대성시킨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인후는 요·순, 문왕, 공자와 같이 중국의 역사, 역대 인물을 통해 도와 문 학을 결합시켜 도의 문학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참 된 군신상 및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써 태평성대의 국가가 이룩되길 바라고 있다.

둘째, 김인후의 풍속시는 문학성을 겸비한 작품이다. 즉 그의 풍속시는 다양한 표현의 수용과 형상화 기법으로 시의 문학성을 높였다.

김인후의 풍속시는 다양한 心象의 표현이 드러난다. 그의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한 객관적,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는 세시마다의 풍속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김인후는實在의 경물을 묘사할 때에 사실적으로 경관을 그리며, 색채와 비유를 사용해 더욱시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풍속시에 보이는 경관 묘사는 객관적, 사실적이지만 작가의 서정성이 돋보인다. 이는 묘사적이고 서정적인 특색을 보이는 唐詩風의 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월의 시「己酉上元 奉寄瀟灑園」에는 '옥가지에 구슬 꽃이 번쩍이는 것을 보네'라고 하여 나뭇가지에 쌓여 있는 눈과 얼어 있는 고드름을 보고 '옥가지'와 '구슬 꽃'으로 표현하여 눈 덮인 모습을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한식의 시「寒食日作」에는 수양버들이 땅에 처져 있는 모습, 많은 대문이 여러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누런 발, 푸른 장막, 붉은 난간의 모습, 성안의 광경, 그네가 걸려있는 나무, 소년들이 격구를 하는 장면, 술을 들고 제사지내는 모습 등한식날 풍속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단오의 시「大殿端午帖」에는 '옥 술잔에 향기로운 창포가 뜨고', '금 쟁반에 각서가 새롭네'라고 하여 술잔에 창포 잎이 떠있고, 쟁반에 각서나 놓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밭두둑 위 빼어난 저 보리이삭'이라 하여 밭에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추절의 시「中秋日有作」에서 '술을 빌려서 얼굴이 붉어졌는데'라고 하여 중추절에 술을 마셔서 붉어진 얼굴을 묘사하고 있다. 답청절의 시「上巳踏靑」에서 '언덕 위 꽃은 붉어 한창 고운데', '들녘 풀은 푸르러 나풀거리네'라고 하여 언덕 위에 꽃이 핀 모습과 들에 풀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경이 잘 그려져 있다. 유두의「流頭後日作」에서 '오늘 밤엔 십분 다 둥글었는데'라고 하여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의

둥근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풍속시는 시각적인 심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의 심상도 나타나 있다. 먼저 청각적 심상에는 정월의 시「正月朔日書」에 '鷄鳴'라고 하여 닭이 우는 것을 표현하였다. 한식의 시「寒食日作」에서 '날씨가 따뜻하여 새가 우는 소리가 갖가지네'라고 하여 새가 운다고 하였고, 그네 타는 여인의 장신구가 서로 부딪쳐서나는 소리를 '珊珊(쟁글쟁글)'이라고 하여 그네 타는 여인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촉각적 심상에는 단오의 시「大殿端午帖」에서 '훈훈한 바람은 전각에 일고'라고 하여 '薰風'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또 '엷은 더위는 성문으로 들어오네'라고 하여 '薄暑'라는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후각적 심상에는 단오의 시「大殿端午帖」에서 '옥 술잔에 향기로운 창포가 뜨고'라고 하여 술잔에 떠 있는 창포 잎의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였다.

김인후는 풍속시에 색채 대비와 대구법으로 시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작품에 예술성을 加味시켰다. 한식의 시「寒食日作」에는 '綠絲(푸른 실)', '黃簾(누런 발)', '綠幕(푸른 장막)', '朱闌(붉은 난간)', '綠鬢(푸른 귀밑)', '靑煙(푸른 연기)'의 다양한 색채 대비를 보인다. 특히 누런 발, 푸른 장막, 붉은 난간은 각각의 색으로 선명한 색채 대응을 보이고 있다.

단오의 시「大殿端午帖」에는 '玉斝(옥 술잔)', '金盤(금 쟁반)'으로 잔의 색을 옥과 쟁반의 색을 금으로 하여 색의 대비를 주었다. 여기서 頷聯의 '옥잔'과 '금쟁반', 頸聯의 '훈훈한 바람'과 '엷은 더위'는 대구를 이룬다. 「中宮殿端午帖」에서는 '五雲(오색구름)'이라고 하여 五色이 상서로운 의미로 쓰였다.

중추절의 시「中秋日有作」에는 '白髮(백발)'과 '紅顏(붉은 얼굴)'의 흰색과 붉은색이 대조를 이룬다. 기구의 백발의 흰색과 전구의 붉은 얼굴의 붉은 색은 선명한 색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기구의 '白髮'과 전구의 '紅顏', 승구의 '春風'과 결구의 '秋月'이 대구를 보인다.

입춘의 시「立春日作」에는 기구의'北極'과 승구의'南陲', 전구의'妖氛'와 결구의

'喜氣'가 선명하게 대구가 드러난다. 답청절의 시「上巳踏靑」에는 頸聯의 '언덕 위불은 꽃'과 '들녘 푸른 풀'로 紅과 綠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다. 首聯의 有-無, 頷聯의 周-晉, 頸聯의 陌上-郊邊이 대구를 보인다. 유두의 시「流頭後日作」에는 기구의어제(昨日)와 전구의 오늘 밤(今宵), 석전일의 시「釋奠日作」에서 기구의 옛날(古)과 승구의 지금(今)이 대구를 보인다.

김인후의 풍속시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의 수법을 써서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형상화하였다. 정월의 시 「己酉上元 奉寄瀟灑園」에는 '옥가지에 구슬 꽃'이라고 하여눈을 옥이라 하고, 눈이 얼어 나뭇가지에 매달린 고드름을 구슬로 비유하여 감각적이미지를 도출해 내었다. 한식의 시 「寒食日作」에서는 다양한 수사법이 두드러진다. 먼저 3연의 '나는 듯한 솟을대문'은 높이 솟은 대문이 마치 하늘위로 날고 있는모습을 정형화 된 물체를 생동감 있게 의인화하였다. 또 4연의 '나는 꽃 춤을 추며'라고 하여 마을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비유하여 나비가 마치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 같다고 표현하였다. 5연의 '나비 눈썹'은 눈썹 모양을 나비로 비유하여 얇고 단정한 눈썹을 표현하였다. 6연의 '玉手'는 그네를 잡은 여인의 손이 백옥처럼 하얗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손의 빛깔을 옥으로 비유하였다. 단오의 시 「大殿端午帖」에는 '翛翛'이라 하여 보리가 많이 자란 모습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시어의 반복을통해 뜻을 강조하고,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시에 음악성을 더했다.

중추절의 시「中秋 梨花盛開」에는 달빛을 '梨花(배꽃)'으로 비유하였고, '盈盈'이라는 '넘실넘실'대는 모양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의 感興을 더욱 일으켰다. 유두의시「流頭後日作」에서 '誰送酒如泉'라고 해서 술을 샘으로 비유하였다. 동지의 시「冬至」에서 '洋洋', '生生', '念念', '綿綿'의 반복적 시어의 사용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납일의 시「臘前三白」의 '곳곳마다 산과 벌판엔 은세계 펼쳐지고', '숲에 가득한 나무들은 옥가지 이어졌네'라고 하여 눈이 내려 온 사방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은세계(銀界)',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옥가지(玉枝)'라고 비유하였다. 김인후의 풍 속시는 다양한 심상의 표현과 색채대비, 대구, 비유와 상징의 기법으로 문학성을 높였다.

셋째, 김인후의 풍속시는 16세기 유학자의 정신세계를 대변하고 있다. 즉 그의 풍속시는 뚜렷한 주제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데, 시에 드러난 주제를 통해 김인후의 정신세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유학자들이 갖는 다양한 정신세계에 접근해 볼수 있다.

김인후의 풍속시는 愛國·愛民의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 체제의 모순과 삶에 대한 갈등이 문학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民'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시작되었다. 16세기 호남시단의 시인들의 작품에서는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고발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인후 역시 도학정신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仁愛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대부로서 어려운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자세를 잊지 않고, 태평성대가 이룩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그는 농사, 천지자연의 변화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많은 애민시를 썼다. 그의 시에는 직접적인 사회 고발이나 격렬한 감정이 표출된 작품은 거의 없으며, 작품들 속에는 백성에 대한 애정과 태평성대에 대한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즉 그의 풍속시는 백성을 생각하는 인간 본연의 性情을 드러내고 있다.

정월의 시「正月朔日書」에는 온 나라에 큰 은혜가 미처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는 김인후의 憂國衷情의 마음을 볼 수 있다.「戊申上元 奉寄瀟灑園」과「己酉上元奉寄瀟灑園」에서는 농사가 잘 되길 빌고, 세상살이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사가 잘 되어 백성들이 근심 없이 잘 살길 바라는 애민의식이 담겨 있다. 김인후는 治者로서 백성과 거리를 두면서 생산을 관장하고 풍속을 교화하기보다는 가식 없는 진솔한 인간의 모습으로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보인다. 또 그는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 어려운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인다.

단오의 시「大殿端午帖」에는 보리가 잘 자라 풍년이 되어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김인후는 농사가 풍년이 되길 기원하면서 더운 날 농사지 을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애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 풍년이 되어 나라의 사정이 좋아지길 바라는 愛國의 마음도 볼 수 있다. 「中宮殿端午帖」에는 왕비가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 恩德을 받고, 富國强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는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임금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푼다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중추절의 시「中秋日有作」에는 김인후가 술을 마시면서 세상살이가 예전 같지 않음을 생각하고 있다. 즉 김인후는 나라 사정이 좋지 않은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백성들이 느꼈을 심정을 그들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심정을 이해하고자 하려는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입춘의 시「立春日作」에는 백성들이 농사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춘에는 백성들이 농사짓기에 알맞은 때를 만났기 때문에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 김인후는 백성들이 농사를 통해 복을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길 바라고 있다. 이 시는 태평성대를 이루기 바라는 經世濟民觀이 표출된 작품이다. 동지의 시「冬至」에도 나라가 잘 다스려져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납일의 시「臘前三白」에는 벼농사가 잘 되어 풍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납일전에 눈이 세 번 내리면 풍년이 되는데, 올해 풍년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김인후도 논밭에 벼가 가득 쌓여 있는 상상을하면서 농부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백성들과 喜怒哀樂을 같이하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며, 애민의 감정이 남달리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인후는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이며, 백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민의식과, 태평성대가 되길 바라는 애국의 마음이 그의 풍속시 전반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드러나고 있다.

김인후의 풍속시는 忠義精神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仁宗 승하 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면서 名利를 구하지 않고, 節義를 지키며 살아갔다. 그는 임종 때에도 옥과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고 하여 그의 인종에 대한 높은 의리정신을 알 수 있다. 1544년(36세 때) 7월 즉위한 지 채 1년도 못 되어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김인후는 놀라 통곡하며 기절하였다가 깨어났고, 이로 인해 병을 얻어옥과현감 마저 사퇴하고 향리인 長城으로 물어났다. 이후 일체의 벼슬을 모두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김인후는 매년 인종의 忌日인 7월 1일이 되면 남쪽의 산중에 들어가 종일토록 통곡하고 돌아오기를 평생 한결같이 하여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문집에는 인종에 대한 忠義와 悲憤을 담은 시가 상당수 남아 있는데 특히 인종을 그리워하면서 쓴 「有所思」가 있다.

한식의 시「寒食日作」에서 9연의 '赤心'과 19연의 '丹忠'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을 말하는데, 임금에 대한 김인후의 忠心이 보이는 곳이다. 여기서 그는 임금에 대한 節義意志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도 개자추와 같은 忠臣임을 밝히고 있다. 12연에서 '은덕을 저버리는 것은 인정이 아니니'라고 하여 사람들이은혜를 잊지 않는 義理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김인후는 의리를 저버린 文公에게 개자추와 같은 좋은 충신을 잃은 뒤에 슬퍼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단오의 시「五月五日題」는 굴원의 넋을 위해 이날 제사를 지내지만 원통한 마음을 위로 받지 못해서인지 그 원혼이 불러도 오질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굴원의억울한 죽음이 사람들의 위로에도 풀릴 수 없는 한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休靜은 김인후를 楚나라 屈原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때문에 굴원의 억울한 죽음과 忠憤에 慷慨한 심정을 김인후는 도학자의 詩觀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김인후의 풍속시는 悠悠自適한 삶의 지향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 부들은 士禍나 당쟁 같은 정치적 이유로 초야에 은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현 실을 벗어나 이상향을 추구했다. 김인후 또한 사화를 목도하고, 인종이 승하하여 현실의 고충과 내면적 고뇌를 씻고 이를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경지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는 고향 장성으로 낙향한 뒤에 한가한 삶을 보내며, 세속과 구별되는 자연 공간 속에서 작가는 현실적 고뇌를 씻으며 自樂과 性情涵養을 즐겼다. 그는 은 거하면서 安逸을 노래했지만 그 공간에서 현실 비판, 이상 추구, 삶의 권계 등을 시에 담았으며, 결국 그 목적이 救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청의 시「上巳踏靑」에는 김인후의 유유자적한 삶을 지향하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曾點의 「浴乎折 風乎舞雩」에 대한 故事를 통해 그도 曾點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뜻과 기상을 마음속으로 체득하고, 그 속에서 道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시「遊東小文外」에 '나의 뜻은 임천에 노상 있는데 이렇게 허덕이니 끝내 어쩌나'를 보면 그의 뜻이 '林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요한 가운데 安分知足의 삶을살면서 세상의 機心을 피하고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리려는 마음이다. 그의 시에는 젊은 날에 꿈꾼 經世濟民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번잡스런 세상사의 영욕을 잊고 오로지 자연 속에 묻혀 隱逸의 삶을 살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때로 자연 속에서 自得之樂을 누리는 시인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유두의 시「流頭後日作」에는 김인후가 유두 다음날 환하게 비추는 달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있다. 그는 유두에 달이 둥글지 않아서 싫다는 것과 술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시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느 도학자가 갖는 일반의 '감정'과 달리, 인간적인 情操가 강렬하게 표출된 主情的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김인후는 당시의 도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였다. 그는 일찍이 老莊사상에 관심이 있었고, 술과 시를 좋아하였다. 김인후는 술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 술을 마시면서 詩興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라 걱정과 마음의 시름을 잊기 위해 술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醉樂詩가 많으

며,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면서 현실에 대한 좌절과 실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김인후의 풍속시가 갖는 위상은 첫째, 堯·舜, 文王, 孔子와 같은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서 도학정신을 함양한 도학자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道의 문학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다양한 心象의 표현, 색채 대비와 대구, 비유와 상징의 다양한 수사법과형상화을 통해 작품의 문학성을 높였다. 셋째, 풍속시에 나타난 愛國・愛民의 의식, 忠義精神과 悠悠自適한 삶을 지향하는 그의 정신세계는 16세기 유학자들이 갖는 정신세계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인후는 풍속시에서 민중의 생활 풍속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풍속 세태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민중 세계의 모습을 관찰하고, 민심을 살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풍속에 관한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백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愛民의 마음을 풍속시에 담았다는 점을 높이평가할 수 있겠다.

## Ⅳ. 결론

河西 金麟厚는 16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며 문인이다. 문집인『河西全集』이 전하고 있다.『하서전집』에는 다양한 주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 중에 세시관련 풍속시는 약 52수가 있다. 正月 관련 시 5수, 立春 관련 시 1수, 踏靑節 관련 시 2수, 寒食 관련 시 3수, 초파일 관련 시는 1수, 端午 관련 시 5수, 流頭관련 시 2수, 生夕 관련 시 1수, 仲秋節 관련 시 2수, 仲陽節 관련 시 2수, 冬至 관련 시 5수, 釋奠日 관련 시 2수, 臘日 관련 시 2수와 帖子는 春帖 4수, 端午帖 8수, 延祥帖 3수, 延祥詩 3수이다. 이렇게 김인후의 작품에는 풍속시에 관한 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한시 작품들은 도학적인 측면만을 주로 접근하여 그의 시를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때문에 김인후 작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인후의작품들 중 세시 관련 풍속시를 연구하여 그의 思惟觀과 민간 절기 풍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김인후의 세시 풍속시가 갖는 문학사적 위상을 밝혀 보았다.

세시풍속은 민중들의 삶을 응축한 문화의 한 현상이므로 민중의 생활사이다. 그러므로 월별에는 節候가 있어 때로는 명절이 되거나 명절에 준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이러한 문화의 현상은 민속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의식주, 생업활동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풍속을 소재로 형상화한 시를 風俗詩라 한다. 본고에서는 김인후의 풍속시 중 名節 관련 세시인 정월, 한식, 단오, 중추절의 풍속시와 辟邪 관련 세시인 입춘, 답청절, 유두, 동지의 풍속시와, 기타 풍속시로 석전일, 납일 관련 시를 살펴 그의 사유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명절 관련 세시풍속인 정월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말한다. 먼저 正朝는 元旦으로 설날 아침을 말한다. 또 정월 보름은 달이 일 년 중 가장 밝다고 하여 '대보름'이라 하며, 한자로는 '上元'라 한다. 김인후는 정월 세시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정월에 행해졌던 풍속을 그냥 넘기지 않고, 조상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이를 통해 김인후의 됨됨이와 그 당시 정월 세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인후는 여러 문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우정을 나누었다. 특히 호남으로 내려와 있는 동안에 문인들과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특히 양산보와 왕래를 많이 하며 지냈다. 정월 세시에도 김인후는 양산보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데, 그의 시에는 양산보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정월의 시에는 정월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백성을 생각하는 그의 愛民 의식이 드러나 있다.

한식은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중국의 介子推傳說이 우리에게 전해져 와한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김인후의 풍속시에는 한식의 마을 情景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색채 대비와 비유의 표현으로 한식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 각종 풍속들인 격구놀이, 성묘, 지전 태우기, 잔치, 답청 등에 대해 묘사되어 한식의 풍속에 대해 면밀히 알 수 있다. 그는 임금에 대한 義理와 신하된 도리에 대한 忠節意志를 시에 담았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꼽아 왔다.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屈原의 죽음에 기인한다. 단오에는 시를 읊는 풍속이 있는데, 사대부들이 굴원의 죽음에 대한 주제로 시를 많이 읊었다. 김인후는 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시에 담았다. 그는 시에 굴원 같은 충직한 신하가 안타깝게 죽는 일이 없도록 임금께서 是是非非를 잘 가려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단오첩에는 임금의 安寧과 풍년을 기원하고, 농업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길 바라는 그의 애민의 마음이 담겨 있다.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또는 한가위이라 한다. 중추절은 가장 풍성한 시기에 쇠어지는 명절로 추수감사제적인 성격이 짙다. 김인후의 풍속시에는 중추절의 풍속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추절의 날씨와 풍경에 대

해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나뭇가지에 비친 달빛을 배꽃으로 형상화하여 달을 단조롭게 묘사하는 것이 아닌 비유를 통해 시의 문학성을 한층 더 높였다. 그 의 시에는 당시 중추절에 사람들이 풍요롭고 한가한 때를 보내야 하지만 나라 사 정이 좋지 않은 현실 세태에 관심을 보였다. 즉 김인후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걱정하는 애민의 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辟邪 관련 세시인 입춘은 음력으로는 대개 설과 대보름 사이이다. 농가에서는 농사준비를 하는 등 정월 풍속과 함께 다양한 한 해의 福을 기원하는 풍속들이 있다. 그 중에 立春帖은 대문기둥·대들보·천장 등에 써 붙였는데, 春帖子에는 백성들이 어둡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과 함께 한 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김인후는 시에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농사지을 때는 처음 시작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봄의좋은 기운을 받아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기원하였다.

답청절은 음력 3월 3일로 삼짇날을 말한다. 답청절 무렵이면 날씨도 따뜻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꽃구경을 한다. 김인후의 시에는 봄날의 경치에 대한묘사가 시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관직을 떠나고 전원생활을 하는 문인으로서의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뜻이 '林泉'에 있었다고 하여 그의 悠悠自適한 삶을 지향하는 정신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다짐했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유두는 음력으로 6월 15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의미로, 동쪽을 향해 흐르는 물로 머리를 감으면 태양이 가진 양기의 힘을 받게 되어 상서롭지 못한 것은 쫓아내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던 데에서 온 풍속이다. 유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이기도하다. 김인후는 술을 마시며 유두 다음날 밤을 보낸다. 그는 유두에 달이 둥글지 않아서 싫다는 것과 술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시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느 도학자가 갖는 일반의 감정과 달리, 인간적인 情操가 강렬하게 표출된 主情的 색채가 짙은 작품이며, 평소에 知人들이 그에게 술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날은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김인후는 동지의 음과 양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고 조화를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시에 잘 나타내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임금의 덕이온 세상에 두루 미처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동지에는 節食으로 '동지팥 죽' 또는 '冬至頭粥'으로 하여 팥죽을 쑤어 먹는 오랜 풍속이 있다. 김인후는 동지를 맞아 양의 기운이 생겨나면 자연의 생물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인 우리들도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지낼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精進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바라는 학문에 대한 그의 열의를 느낄수 있다. 즉 공부하기 전에는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해서 바른 도에 이르라는 것이다. 또 공부를 하면서도 중도에 그치지 말라고 하여,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다.

그 밖의 세시풍속인 석전일과 납일은 모두 제사와 관련이 있는 풍속이다. 먼저석전일은 석전제를 하는 날로 文廟에서 孔子를 제사 드리는 큰 제향으로서 春·秋로 나누어 음력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김인후는 祭를지낼 때에 옷을 단정히 하고, 자신의 거처를 안팎까지 청소하며, 整肅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제를 지냈다.

납일은 동지 이후 셋째 未日로 예전에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 지내던 날이다. 납일에는 나라에서는 臘享이라 하여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사직에 供物로 바치고 大祭를 지냈고, 민간에서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김인후는 제사를 지내면서 풍년이 들기를 빌었고, '老農'의 시어를 사용해 납일이 농사와 관련된 풍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인후는 사방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은세계라는 '銀界'와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을 옥가지라는 '玉 枝'라는 감각적인 비유의 표현으로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김인후는 백성들과 喜怒哀樂을 같이하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애 민의 감정이 남달리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인후의 풍속시가 갖는 위상은 첫째, 堯·舜, 文王, 孔子와 같은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서 도학정신을 함양한 도학자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道의 문학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다양한 心象의 표현, 색채 대비와 대구, 비유와 상징의 다양한 수사법과형상화를 통해 작품의 문학성을 높였다. 셋째, 풍속시에 나타난 愛國・愛民의 의식, 忠義精神과 悠悠自適한 삶을 지향하는 그의 정신세계는 16세기 유학자들이 갖는정신세계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인후는 풍속시에서 민중의 생활 풍속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풍속 세태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민중 세계의 모습을 관찰하고, 민심을 살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풍속에 관한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백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愛民의 마음을 풍속시에 담았다는 점을 높이평가할 수 있겠다.

김인후의 풍속시는 그의 인간적인 성향과 백성을 생각하는 선비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또한 16세기 당대 민중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풍속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사대부 선비였던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세시마다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시에 담았다. 때문에 김인후의 풍속시를 통해 당대 도학자가 가지는 사상을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河西全集』, 한국문집총간 33,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8. 國譯『河西全集』上中下,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93. 高尚額, 『泰村先生文集』 金玲, 『溪巖先生文集』 盧守愼, 『蘇齋先生文集』 李植, 『澤堂先生別集』 李安訥, 『東岳先生集』 趙纘韓, 『玄洲集』 『論語』 『孟子』

『書經』

『詩經』

『禮記』

『朝鮮王朝實錄』

『春秋左氏傳』

#### 2. 저서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강현모, 『한국민속과 문화』, 비움과 채움, 2005.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Ⅱ』, 민속원, 2003.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기산칼라, 2003.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국립민속박물관, 2003-2005.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국립광주박물관, 2007.

- 김경훈. 『(상상 밖의 역사) 우리 풍속 엿보기 오늘의 책』, 2000.
- 김내창. 『조선풍속사』. 한국문화사. 1992.
- 김병주.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하서기념회. 2000.
- 김성식·나경수·나승만·서해숙·윤여송·이경엽, 『남도 민속의 세계』, 민속원, 2005.
- 김영태, 『(옛 마을)세기·절기 풍속: 우리 옛 삶을 찾아 담은 민속 그림이야기 260 』, 이담Books, 2009.
- 김진웅, 『仁宗昇遐와 金河西 節義』, 명성출판사, 2003.
- 박만규·나경수,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 박명희,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 경인문화사, 2006.
- 박준규,「河西 金麟厚」,『한국문학작가론Ⅱ』, 형설출판사, 1985.
- \_\_\_\_\_,『호남시단의 연구 : 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7.
- 백승종,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2003.
- 윤호진. 『동류수에 머리감고』, 민속원, 2003.
- \_\_\_\_\_, 『천중절에 부르는 노래』, 민속원, 2003.
- 이동환, 「하서의 도학적 시세계」,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하서기념회, 1994.
- 이욱, 「석전의 가치와 역사」, 『문묘일원과 석전대제』, 종로구 간행, 2003.
- 이현수, 『호남민속문화의 이해』, 민속원, 2004.
-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 조기영,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硏究』, 아세아문화사, 1994.
- \_\_\_\_\_, 『河西詩學과 湖南詩壇』, 국학자료원, 1995.
- 최상수, 『韓國 民俗文化의 硏究』, 성문각, 1996.
- \_\_\_\_\_, 『(韓國의 美) 歲時風俗』, 서문당, 1999.
- 표인주, 『남도 민속 문화론』, 민속원, 2002.
- 하서기념회,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하서기념회, 1994-2005.
- 허경진, 『河西 金鱗厚 詩選』, 평민사, 2000.

#### 3. 논문

고영진,「하서학과 호남사림의 동향」,『국학연구』第7輯, 한국국학진홍원, 2005. 김동하,「河西 金麟厚 先生의 生涯와 交遊 樣相」,『古詩歌硏究』第21輯, 韓國古詩歌

- 文學會, 2008.
- 김명순,「趙秀三의 紀俗詩 연구」、『동방한문학』第14輯, 동방한문학회, 1998.
- 김상민, 「河西 金鱗厚의 詩世界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성언,「白洲 李明漢의 館閣風 漢詩 연구」,『韓國漢詩研究』第15輯, 한국한시학회, 2007
- 김성진, 「河西 金麟厚의 生涯와 詩文學的 性向」, 『漢文古典研究』第16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08.
- 김승심,「한·중 시가 속에 표현된 歲時文化」,『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국인문학회, 2007.
- 김용태, 「옥수 조면호의 기속시 연구」、『동방한문학』第24輯, 동방한문학회, 2003.
- 김종진, 「河西 金麟厚의 '主情的 道學'의 詩觀과 詩世界」, 『한문교육연구』第11輯, 한 국한문교육학회, 1997.
- 김진영, 「도학파 시문학의 한 양상: 김인후」, 『시와 시학』, 1994.
- 남재철,「菊圃 姜樸의 시세계와 세시기속시」,『한문학보』 第13輯, 우리한문학회, 2005.
- 박명희,「하서 영물시에 나타난 물의 표상성」,『고시가연구』第10輯,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박병익,「『倪仰亭三十詠』과 自然景物에 대한 美感 -金麟厚, 高敬命, 林億齡, 朴淳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第21輯,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박성규, 「河西 金麟厚의 自然詩 硏究」,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 박욱규,「河西 金麟厚의 詩文學과 삶의 認識」,『論文集』第21輯, 서강정보대학, 200 2.
- 박준규,「朝鮮 前期 湖南詩壇의 研究」,『호남문화연구』第25輯,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1997.
- 백승종, 「16세기 조선의 士林政治 와 金麟厚」, 『진단학보』, 진단학회, 2001.
- 변병선,「歲時風俗」,『강원문화연구』第10輯,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0.
- 손재숙,「金麟厚의 生涯와 學問」,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장섭,「歲時紀俗詩를 통한 조선 후기 歲時風俗의 의미와 양상」,『비교문학』第46

- 輯, 한국비교문학회, 2008.
- 안봄,「河西의 文學作品에 나타난 歷史意識 硏究」,『인문과학연구』第21輯,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 \_\_\_\_,「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양진조,「陶隱 李崇仁의 歲時風俗詩 考察」,『어문론집』第29輯, 중앙어문학회, 2001.
- 오병무,「河西 金麟厚의 性理哲學」,『東洋哲學研究』第36輯,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유권종, 「河西 김인후의 實理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第12輯,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88.
- 유영희, 「河西 金麟厚의 생애와 사상」, 『中國哲學』第3輯, 中國哲學會, 1992.
- 이기동,「釋奠祭禮의 사회철학적 의미」,『한국사상과 문화』第40輯,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이명련,「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 6.
- 이제희,「韓國竹枝詞 硏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창희,「옥소 권섭의 기속시 연구」,『우리어문연구』第30輯, 우리어문학회, 2008.
- 이현주,「河西 辭, 賦문학의 도학적 성격」,『고시가연구』 第5輯,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 정경희, 「河西 金麟厚의 詩世界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대환, 「河西 性理學과 畿湖儒學」, 『哲學硏究』第69輯, 대한철학회, 1999.
- 정병련,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性理學」, 『유교사상연구』第12輯, 한국유교학회, 19 99.
- 정익섭,「湖南歌壇에서의 河西 金麟厚의 位置」,『東洋學』第17輯, 檀國大學校 東洋 學研究所, 1987.
- 조기영,「河西 金麟厚의 詩認識 様相」,『洌上古典研究』第4輯, 洌上古典研究會, 199 1.
- \_\_\_\_\_,「河西 金麟厚 詩 研究」,『洌上古典研究』第5輯,洌上古典研究會,1992.
- \_\_\_\_\_,「金麟厚의 法古精神과 現實認識」,『洌上古典研究』第7輯,洌上古典研究會, 1994.
- 진경지,「한국 歲時記·紀俗詩에 나타난 벽사신앙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영성, 「河西 金鱗厚의 學問과 出處觀」, 『東洋古典硏究』第12輯, 東洋古典學會, 19

99.

- 표인주,「대보름民俗과 관련된 달맞이(望月) 考察」,『비교민속학』第13輯, 비교민속학회, 1996.
- 하상규,「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敎育 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한예원,「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고시가연구』第1 4輯,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허이종, 「河西 金鱗厚의 詩文學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홍인표,「竹枝詞 연구」,『中國學報』第33輯, 한국중국학회, 1993.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78036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효 진 한문: 李 孝 眞 영문: Lee Hyo-Jin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라인아파트 103동 1504호				
연락처	010 * 6297 * 7355 E-MAIL: believe1205@hanmail.net				
논문제	한글 : 河西 金麟厚의 歲時風俗詩 硏究				
목	영문 : A study on Haseo Kim In-hu's Poem of Seasonal				
	Custom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 다 음 -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음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12월 7일

저작자: 이 효 진 (서명 또는 인)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